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채 규 만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201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 리 학 과
류 효 정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채규만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류효정

인 준 서

류효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내재화, 외현화 장애를 경험하는 임상군 아동들은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또래의 지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거나, 소외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잘 발달된 사회기술을 지닌 개인은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분노 또한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임상군 아동의 치료에 있어 사회기술의 증진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적절한 수준의 사회기술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하에서 더 잘 발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아동의 아버지들이 치료나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는 아직 상당히 부족하여 치료 효과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군 아동의 아버지의 어떠한 양육태도가 특정 정신병리와 함께 사회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론적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치료에 있어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신병리의 종류에 따라 효율적으로 부모교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론적 정보를 제공하고 아버지 부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임상군 아동의 아버지가 치료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높이고, 아동이 아버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사회기술을 강화하여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재발 예방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대한 아버지 양육태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환아의 내재화 외현화 장애(ADHD 포함), 내-외 혼재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적대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내재화, 외현

화 장애(ADHD 포함), 내-외 혼재 장애 환자의 사회기술과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를 정상군과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에는 42쌍의 임상군 아동과 부모, 87명의 정상군 아동과 부모의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아동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아버지 양육태도와 사회기술을 작성하였고 그들의 부모 및 보호자가 CBCL 6-18을 작성하였다. 임상군의 경우 진단명의 종류가 다양하여 CBCL 6-18을 근거로 내재화, 외현화(ADHD 포함), 내-외 혼재 장애로 다시 분류하였다. 정상군은 CBCL 6-18에서 임상군 수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외한 대상만 포함되었다.

그 결과 첫째, 내재화 외현화 장애(ADHD 포함), 내-외 혼재 장애, 아버지의 양육태도(적대적, 통제적)는 사회기술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임상군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통제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현화 장애의 한 종류인 ADHD와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통제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임상군과 정상군의 비교 연구에 있어서는 임상군이 정상군에 비해 사회기술과 하위 영역인 공감, 자기조절, 협동, 주장에서도 모두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임상군은 정상군에 비해 낮은 수준의 사회기술을 보고하였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더 통제적이고 적대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외현화 장애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는데 이는 임상군 아동의 성공적인 치료에 있어 아버지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 및 부모교육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또한 치료 장면에서 치료자나 평가자가 임상군

아동의 사회기술 증진을 위해서는 아버지 양육태도에 대해 점검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외현화 장애 아동의 아버지의 경우 통제적 양육태도를 지양하여야 하며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의 부모교육이 아동의 치료에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요어 : 아버지, 양육태도, 내재화 장애, 외현화 장애, ADHD, 내-외 혼재 장애, 사회기술, 조절효과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

II. 이론적 배경

1. 내재화, 외현화 장애	
1) 아동기 정신장애 분류	9
2) 내재화 장애	11
3) 외현화 장애	13
2. 사회기술	14
1) 사회기술의 개념	14
2) 사회기술의 하위영역	16
3. 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	17
2) 양육태도의 종류	19
3) 아버지 양육태도	25
4. 각 변인 간의 관계	27
1) 내재화,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	27
2) 아버지 양육태도와 사회기술	30
3) 아버지 양육태도와 내재화, 외현화 장애	32
5. 연구문제 및 가설	3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37
2. 측정도구	
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	38
2) 사회기술 평정척도	39
3) 한국판 아동행동 체크리스트	40
3. 연구 모형	42
4. 분석 방법	43

IV. 결과

1. 기술통계	44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	47
3. 임상군 장애수준과 사회기술 관계에서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49
4. 임상군 장애수준과 사회기술 관계에서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58
5. 집단 간 사회기술 차이	63
6. 집단 간 지각된 아버지의 양육태도 차이	64

V. 논의 및 제언

1.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65
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72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 척도의 내적합치도	39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5
표 3. 연구 대상 집단에 따른 변인의 일반적 경향	46
표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임상군)	47
표 5. 임상군의 내재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 태도의 조절 효과	50
표 6. 임상군의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 태도의 조절 효과	51
표 7. 임상군의 ADHD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54
표 8. 임상군의 내-외 혼재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57
표 9. 임상군의 내재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	

태도의 조절 효과	58
표 10. 임상군의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 태도의 조절 효과	60
표 11. 임상군의 ADHD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 태도의 조절 효과	61
표 12. 임상군의 내-외 혼재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62
표 13. 집단 간 지각된 사회기술 차이	63
표 14. 집단 간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의 차이	64

그림 목 차

그림 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20
그림 2.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22
그림 3. 연구모형 :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에 대한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42
그림 4. 연구모형 :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에 대한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42
그림 5.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52
그림 6. ADHD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5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아동기의 정신병리는 흔히 내재화 장애, 외현화 장애로 구분 짓는데 그 이유는 아동기에 발병하는 정신병리의 증상이 다른 증상들과 공병하는 경우가 많고, 변화가 많은 발달 과정에 해당하여 증상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기 정신병리의 진단에 있어서 DSM-IV나 ICD-10의 기준에 부합하기가 어렵고 진단 체계에 의해 단독진단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강현정, 국승희, 2010). 이에 아동의 정신병리를 진단하는데 있어 Achenbach와 Edelbrock(1987)의 요인분석 결과로 군집된 내재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는 아동의 행동 차원의 분류로써 아동기 정신병리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강현정, 국승희, 2010; 구연익, 노경란, 2012)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접근법이다(오경자, 1991). 내재화 장애는 아동이 겪는 갈등이 내부로 향하면서 우울, 불안을 경험하고 적응상의 곤란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고, 외현화 장애는 아동이 겪는 갈등이 공격적 행동, 과잉행동과 같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런데 내재화, 외현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경우 자신이 겪고 있는 증상으로 인해 이러한 사회기술을 발달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외현화 장애의 특성 중 하나인 품행장애나 반항성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주변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기도 하고, 품행장애와 우울장애가 공존하는 아동들은 공격적 행동과 사회적으로

철수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상황에서 유능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nouf, Kovacs, & Mukerji, 1997). 주의집중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주의가 분산되면서 또래의 이야기나 단체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타인의 활동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행동을 흔히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은 또래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유발한다(김태은, 2012; 오혜선, 채규만, 김명식, 2007; Hinshaw et al, 1997; Landau & Moore, 1991;). 또한 내재화 장애 아동은 사회적 철수, 우울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회피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고립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강지현, 2009; 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Feng, Shaw, Silk, 2008). 그리고 우울장애가 있는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에 비해 언어표현, 타인의 이야기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상호교류간의 범위 등 사회기술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Libet & Lewinsohn, 1973). 이렇듯 내재화, 외현화 장애는 낮은 수준의 사회기술과 연관이 있는데(Keltner & Kring, 1998) 내재화, 외현화 장애를 경험하는 아동들은 증상 때문에 물론 부족한 사회기술로 주변의 지지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

내재화, 외현화 장애 아동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적응적 생활을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사회기술(social skill)을 들 수 있는데 사회기술이란 아동이 또래와 조화를 유지하면서 개인적·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조절 활동으로 목표지향적인 특징을 띄고 있다(Shaffer, 2005, pp.599). 사회기술이 잘 발달된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형성의 용이하여 사회적 수용을 쉽게 경험한다고 하였고(Asher & Tayler, 1981), 심지어 사회기술이 적절한 학생이 더 나은 학업성취를 보였으며(Walker & Hops, 1976) 학교생활적응과 자존감도 높다는 연구도 있다(전연이, 2006).

또한 사회기술이 잘 발달한 사람은 심리적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 과도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며 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고 하고(Segrin et al., 2007) 분노를 조절함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오선민, 1999). 이렇듯 잘 발달된 사회기술은 대인관계에서의 적응은 물론, 양호한 학업성취와 정서적 안정으로도 아동을 이끌기 때문에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고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임상군 아동의 치료와 적응을 지속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치료 요소가 된다.

그런데 적절한 수준의 사회기술은 부모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아동이 부모와 안정 애착을 통해 유능한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면서 더 잘 발달될 수 있다. 사회기술을 예측해주는 변인들은 공감, 성격, 주의조절 등이 있지만(차주환, 2012)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 아동 간의 애착은 아동의 사회적응 및 사회화를 예측해주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강지현, 2009; 차주환, 2012; Roopnarine, J. Krishnakumar, Metindogan, & Evans, 2006; Weiss & Schwarz, 1996). 특히, 아버지의 경우 아동과의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에 비해 신체를 많이 사용하고 예측할 수 없는 놀이를 하면서 아동과 상호작용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놀이 관계를 통해 아동의 사회기술을 발달된다고 한다(Shaffer, 2005, pp.205; Dumont & Paquette, 2008). 이를 뒷받침 하듯이 아버지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시간을 자주 가지거나,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의 문제해결 기술을 비롯하여 사회적 유능성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김미영, 2005; 김민경, 2009; 김현숙, 2000; 김현주, 2009; 노윤성, 2007; 박광균, 2000; 박혜경, 2002; 이미향, 2004, 이영순, 1987; 이우철, 2010; 은주영, 2002; 장휘숙, 2000; 조성자, 2003; 채진영, 2009; Kindlon & Thompson, 1999; Rinaldi & Howe, 2012; Roopnarine, Krishnakumar,

Metindogan & Evans, 2006). Lumis(1982)는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참여가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마찰이나 갈등을 덜 경험하게 해주는 예측요인이라고 제시하였으며(채진영, 2010에서 재인용), 이용택(2011)의 연구를 보면 아버지의 애정 어린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도덕성은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아버지 밑의 자녀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덜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더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에 비해 뒤늦게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렇듯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기술 및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반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이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보인다고 하며(이주영, 2009), 아버지와 신뢰로운 관계가 부족하고 소외감을 느낄수록 친구에 대한 신뢰와 의지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채진선, 2007). 아버지의 과잉보호 밑에 있는 자녀는 수줍음, 긴장감과 함께 사회적 의존성, 과민한 성향을 보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용기가 부족하고 열등감을 보이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며(서봉연, 1982) 아버지의 강압적이고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독재적(authoritarian)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와 높은 상관성이 있었는데(Kim, Ge, Brody, Conger, Gibbons, & Simons, 2003; Rinaldi & Howe, 2012; Roopnarine, Krishnakumar, Metindogan, & Evans, 2006; Shaw, Owens, Giovannelli, & Winslow, 2001)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신병리를 심화시켜 자녀의 사회적 고립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온정이 부족하고 처벌을 자주 하는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

의 공격적 행동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는 등(황규숙, 1999; Dishion, Duncan, Eddy, Fagot, & Fetrow, 1994)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기술 및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치료 장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치료에 참여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치료효과가 더 좋았고(고운순, 2006) 아버지의 양육태도 변화로 인해 그 효과도 오래 지속되었다는 연구결과들(안재욱, 우주영, 2013; 장미경, 권영주, 손금옥, 2008; 전해리, 2010)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치료 참여,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따른 사회기술 발달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해보면, 아동이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아버지의 치료 참여와 양육태도 변화는 성공적인 치료를 이끌고 아버지의 치료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임상군 아동의 사회기술 발달에 있어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장면에서 아버지의 참여는 상당히 미비한 편인데 아버지의 경우 바쁜 사회생활로 자녀와 상호작용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지 못하면서(한은주, 1998) 치료의 조력자로 어머니만이 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가족적 구조는 아버지가 자녀의 증상이나 상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아버지가 치료 장면에서 요구되는 아버지의 역할을 학습하거나 아동의 증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면서 아동의 치료 효과도 감소될 수 있는데 아동의 사회기술이 아버지와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보면 아버지의 치료 불참은 환아가 아버지와 상호작용

용을 통해 충분한 사회 기술을 습득하여 또래로부터 지지적 관계를 경험하고 스트레스를 완충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스스로가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아동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며 치료 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이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환아의 한 달 치료비가 평균 29만원이라는 조사연구의 결과(류현정, 이승희, 2007)를 참고해볼 때, 치료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의 현황을 살펴보면 648만 2,472명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한 '관심군'은 2010년 12.8%, 2012년 16.3%(105만 4천명)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2013, 동아일보). 또한 건강보험가입 아동 1,000명 당 정신장애 실인원수도 2002년 10%에서 2005년 14%로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2002~2005년 건강보험 통계보험; 강은정, 2007에서 재인용). 이러한 조사들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며 임상장면에 있는 실무자들 또한 아버지의 치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데 책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며 특히 내재화, 외현화 장애 임상군과 정상군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의 차이를 비교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장애에 따라 아버지의 어떠한 양육태도가 지양되어야 하고,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하기 때

문에 아버지의 치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설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어떠한 양육태도가 아동의 특정 정신 병리와 함께 사회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론적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치료에 있어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신병리의 종류에 따라 효율적으로 부모교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임상군 아동의 아버지가 치료에 참여하여 아동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고, 아동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기술을 강화하여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증상의 재발 방지와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대한 아버지 양육태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 또한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내재화, 외현화 장애 아동이 낮은 수준의 사회기술과의 상관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장애의 심각도에 따라 사회기술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재화, 외현화 장애 아동을 예측변인으로, 아동의 사회기술을 준거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조절변인(moderator variable)으로 두어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더불어 주요 우울장애의 아동 79%가 품행장애나 반항성 장애와 공존하는 등 아동기 정신 병리는 공병장애가 높다는 선행연구들(Kovacs, 1989; Puig-Antich, 1982)에 따라 내-외 혼재 장애 또한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사회기술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임상군 아동과 정상군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사회기술 간 집단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자 하는데 이러한 임상군과 정상군의 비교는 아버지의 치료 참여를 강조하는데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선행연구들 중,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통해 자녀의 또래 유능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가 또래 유능성과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최지희, 2002) 이는 아버지-자녀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질적 측면이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삼아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아닌 양육태도에 따라 아동의 사회기술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또한 애착은 인생의 특별한 대상에게 느끼는 강한 정서적 결속이고 상호적 관계의 개념이라고 한다(Bowlby, 1969; Shaffer, 2006, pp.193에서 재인용). 양육태도는 애착의 질을 반영하는데,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안전 애착, 불안정 애착으로의 그 방향성을 결정 받게 된다고 하였다(윤진아, 2010). 즉, 양육태도에 의해 애착의 방향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 간의 애착이 아닌 양육태도를 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내재화, 외현화 장애

1) 아동기 정신장애의 분류

아동기 정신병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의학적 분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편람(Dignostic and Sta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DSM,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의 체계를 따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아동행동 체크리스트 점수 체계(Child Behavior Check List: CBCL, Achenbach와 Edelbrock; 1983)를 따르는 것이다(강현정, 국승희, 2010). 우선 DSM-IV의 경우 다축적 분류체계(multiaxial classification)를 통해 아동을 5가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아동이 보이는 증상에 근거를 두어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만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어있는데 아동이 장애가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아동의 정신병리를 분류하는 분류적 접근을 한다(Wener, & King, 2006, pp. 67). DSM-IV는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정의할 수 있는 행동 특정적 용어를 사용하며 정신장애 분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DSM-IV는 아동의 역동적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증상 위주의 특징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며(Mash & Terdal, 1998) Cantwell(1996)은 ADHD의 과잉행동이 저학년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반면, 이러한 아동들이 고학년이 될수록 부주의가 더 두드러지는 등 DSM-IV의 진단적 기준이 발달적 차원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을 지적하며 DSM-IV가 아동·청소년기 정신병리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병 장애를 적절히 진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DSM-IV가 분류적 접근을 근거로 하는 반면, 차원적 접근은 아동의 특정 장애와 일치하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정도에 따라 정신병리를 평가하는데 (Wener, & Kerig, 2006, pp. 67) Achenbach(1995)는 차원적 접근이 정신병리와 정상의 사이에 연속성을 가정하고 증상의 수가 그 심각성은 나타낸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Achenbach(1991)은 예비연구를 통해 정신병리적 행동에 대한 기술을 수집하여 아동 1800명의 부모에게 이를 답하게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불안, 우울, 신체화와 같은 과통제된 행동은 내재화 요인을 형성하였고 공격, 비행과 같은 과소통제된 행동은 외현화 요인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한 접근법으로(오경자, 1991) 아동의 행동 차원의 분류로써 아동기 정신병리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강현정, 국승희, 2010; 구연익, 노경란, 2012). 또한 Albayrak-Kaymak(1990)도 Achenbach와 마찬가지로 정신과적인 문제는 내재화, 외현화로 분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분류는 원인, 예후를 알아보기 위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신병리에 대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Achenbach의 내재화, 외현화 분류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Achenbach는 1983년에 아동행동 체크리스트 점수 체계(CBCL)를 만들었으나 연령에 따라 각기 다른 척도가 제시되어 사용의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이에 1991년에 연령을 확대하여 아동의 문제 행동을 위축행동(withdrawn), 신체증상(somatic complain), 불안/우울(anxious-depressed), 사회적 미성숙(social problems), 사고의 문제(thought problem), 주의집중문제(attention problem), 비행(delinquent), 공격성(aggressive) 8개의 문제 행동으로 분류하게 되었다. 이

중 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3개 척도는 내재화 문제로, 비행 공격성 2개 척도는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였다(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pp.7).

본 연구에서는 DSM의 기준으로 소아정신의학과에 내원하는 아동의 진단을 선별하기에 공병률이 높고 집단이 세분화된다는 점과 Achenbach의 분류유형이 DSM의 하위 진단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Achenbach의 분류유형을 기초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아동을 내재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로 구분하고자 한다.

2) 내재화 장애

내재화 장애는 아동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자기 안으로 향하여 과도하게 통제된 형태로 흔히 불안/우울, 위축, 신체증상, 과도한 수줍음과 공포감과 같은 증상을 보이고 공상 활동에 자주 빠지는 등 자기지향적 행동을 보이기 쉽다(문미영, 2000). 내재화 장애는 과거에 신경증(neurosis)이라는 용어로 표현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우울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와 같이 구체적인 용어로 표현되고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포함하는 증후군들은 한 가지 증상뿐만 아니라 우울, 불안, 위축의 특징이 혼재해 있다고 한다(육근정, 2007). 그러나 내재화 장애의 특성 상, 주변 사람들에 의해 관찰되지 않기도 하여 치료가 적절히 개입되지 못할 때가 있고, 유아기 및 아동기의 내재화 문제 행동은 안정적이다가 청소년기에 증가하기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강지현, 2009; Bongers, Koot, van der Ende, Verhulst, 2003). 더불어 내재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타인과의 상

호작용의 회피 및 미성숙, 두려움을 보이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면서(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강지현, 2009; Feng, Shaw, & Silk, 2008), 아동의 전반적인 사회 기술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Falk, Dunlap, & Kern, 1996) 내재화 증상에 있어서는 시기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내재화 장애의 발달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아동의 까다로운 기질(difficult temperament)(Tomas & Chess, 1977; Bates & Bayles, 1988)과 자녀를 과잉통제하거나, 엄격한 양육방식을 보이는 부모 양육태도가 보고되었다(Parker, 1983; Rapee, 1997; Rubin & Mill 1990). Rubin & Mills(1991)는 ‘경계심(wariness)’이 많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과 아동으로 하여금 불안정감(insecurity)을 느끼게 하는 적대적인 주변 환경 또한 내재화 장애 발달 경로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라고 제시하며 불안정감과 연합된 내적 작동모델은 사회적 위축, 사회기술의 결함, 내재화 문제를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대상이나 상황에서의 철회된 행동을 보이는 ‘행동억제(behavior inhibition)’기질도 내재화 장애와 많은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Mick & Telch, 1998)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불안 증상을 발달시킬 위험이 높고(Kagan & Snidman, 1999), 실제 3년 간 추적연구의 결과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은 다양한 정신과적 진단과 두 개 이상의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Biederman, Hirshfeld-Becker, Rosenbaum, Hérot, Friedman, Snidman, & Faraone, 2001; Biederman, Rosenbaum, Bolduc-Murphy, Faraone, Chaloff, Hirshfeld, & Kagan, 1993). 국내의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의 적대적 양육태도, 아동의 사회적 민감성 기질이 내재화 장애의 초기 수준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되었다(강지현, 2009).

3) 외현화 장애

외현화 장애는 심리적 어려움이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과 같이 과소 통제된 형태로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며(공영숙, 2001; 구연익, 노경란, 2011; 문미영, 2000; Achenbach & Edelbrock, 1983), 충동적이고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행동을 지칭한다(장은경, 2000). 여기서 외현화 장애의 파괴적인 행동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의집중력 부족과 과잉행동, 충동성의 문제로, 둘째는 공격성, 반항적 행동, 심각한 품행 문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Waldman, Lillienfeld, & Lahey, 1995). 외현화 문제를 표현하기 위해 행동화(acting out), 과소통제(undercontrolled), 반항적(oppositional), 반사회적(antisocial), 품행장애(conduct disorder), 비행(delinquent)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데(육근정, 2007) 외현화 장애가 있는 아동들은 빈번히 또래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싸움을 일으키기도 하고, 좀 더 성장한 청소년의 경우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집단 폭력을 가하기도 하며 물질남용을 보이기도 하는 등 범법행위와도 관련이 있어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Wener, & Kerig, 2006, pp. 226~229).

외현화 문제 행동의 발달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가정의 관찰(monitoring) 부족과 비일관적인 부모의 훈육방식이 보고되었고(Patterson & Capaldi, 1990) 부모의 적대적, 방임적, 엄격한 양육태도 또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보고되고 있다(강지현, 2009; 정연옥, 2010; Bandura & Walters; 1959; Booth, Rose-Krasnor, McKinnon, & Rubin, 1994; Russell, 1996). 특히, 적대적인 양육태도는 외현화 장애뿐만 아니라 내현화 장애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보고되고 있다(Kim 외, 2003).

부모의 양육행동 외에 아동의 기질적인 특성도 아동의 외현화 장애의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행동을 통제, 시작, 지연하는 능력인 자발적 통제(effortful control) 능력의 저하가 외현화 문제를 유발하고 낮은 수준의 자발적 통제 능력은 외현화 장애를 예측해줄 수 있다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Eisenberg, Sadovsky, Spinrad, Fabes, Losoya, Valiente, & Shepard, 2005; Valiente, Eisenberg, Smith, Reiser, Fabes, Losoya, & Murphy, 2003). 이후 부정적인 정서가 자발적 통제와 상호작용하여 외현화 행동을 유발한다는 결과도 있었다(Nigg, 2006). 그런데 낮은 수준의 자발적 통제와 부정적인 정서는 외현화 문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 장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는데(Anthony, Lonigan, Hooe, & Phillips, 2002; Lonigan, 2004) 최근에는 낮은 수준의 자발적 통제, 부정적 정서와 함께 모친의 부정적 정서와 가족 기능 또한 내재화 장애에 연관을 준다는 결과도 있다(Crawford, Schrock, & Woodruff-Borden, 2011).

2. 사회기술

1) 사회기술의 개념

사회기술(social skill)은 사회능력(social competence), 사회성(sociability)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우선 ‘사회기술’은 상호작용 하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술(Foster & Ritchey, 1979), 혹은 대인관계에서 유능하게 사회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특수한 능력(문성원, 2013)으로 정의된다. 또는 대인관계에서 유발되는 여러 상황에 적절히 행동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Elliott & Gresham, 1993).

McFall(1982, pp. 12; 차주환, 2012에서 재인용)은 ‘사회능력’에 대해 한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보이는 수행의 적절성을 뜻하는 평가적 용어라고 설명하는 반면에 ‘사회기술’은 사회적 과제를 유능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Gresham, Elliott(1987)는 그들의 사회능력 모델에서 사회능력을 적응행동과 사회기술로 분류하고 사회기술에는 친사회적 행동, 과제 수행 행동, 또래 수용, 대화기술, 자기주장이 포함 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기술이 사회능력의 하위 개념에 속하고 사회기술이 목적이 있는 구체적인 행위의 측면임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성’은 타인과 효율적으로 관계를 맺고 타인과 유능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은 물론 그런 기술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거나(이금자, 2004), 혹은 타인과 공동생활을 하려는 성향으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 상호호혜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행동양식과 습관을 형성하는 것으로(문현실, 2006) 사회성이 사회기술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며 사회기술의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회성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기술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사회기술이 개인이 타인과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적 측면에서 적절한 능력이라는 점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다. 또한 적절한 사회기술은 사회능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응행동을 높일 수 있게 하며 사회능력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위 개념이자 사회화에 비해 좀 더 구체적인 행위에 속한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 개념을 측정하고자 한다.

2) 사회기술의 하위영역

앞서 사회기술은 사회성, 사회 능력에 비해 좀 더 행위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의 차원임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사회기술의 하위 영역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Oden과 ASher(1977)은 의사소통, 협동, 참여, 지지 행동, 인사하기를 사회 기술의 하위영역으로 보았고, Rinn과 Markle(1979)은 자기표현기술, 자기주장기술, 의사소통기술 등을, Goldstin(1988)은 교실에서 적용하는 기술, 친구사귀기,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공감하기 등이라고 하였다.

Gresham과 Elliott(1990)는 사회 기술을 이루는 구성요소로 협동, 주장, 공감, 자기통제를 제시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사회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사회기술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를 만들었다. 이 척도의 하위 구성 중 하나인 ‘협동’은 부모나 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타협하는 법을 알며,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장’은 자신이 먼저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친구와 관계를 시작하고 주도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소두영, 2008). ‘공감’은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내적 과정을 거쳐 말, 미소, 경청과 같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다차원적인 과정이며 ‘자기통제’는 친구의 놀림, 어른과의 갈등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적응적인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충동이나 즉각적인 만족을 인내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한다(김미영, 2005).

Gresham과 Elliott의 사회기술 하위요인이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하위요인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고, 아동의 사회기술을 구성함에 있어 언어적 표현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 요인도 포함하고 있으며 행동적 측면은 물론 심리적 측면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협동, 주장, 공감, 자기통제는 내재화, 외현화 장애 아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보일 수 있는 부족한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Gresham과 Elliott의 사회기술의 하위요인에 기초하여 내재화, 외현화 장애 아동의 사회기술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

17세기까지는 체벌과 같은 엄격한 훈육이 가장 효율적인 양육태도로 여겨졌지만(Beger, 1981, pp.30-40) 정신분석학의 가족과 성인에 대한 임상적 연구로 아동기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도 시작되었다(Schaefer, & Bell, 1958). 미국에서는 1946년 정신위생관계법이 통과되면서 정신위생프로그램과 연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게끔 하였는데 이는 부모가 부모-자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족구성원 간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하다는 의식을 갖게 해 주었다고 한다(Berger, 1981, pp.61). 이에 서양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는데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아동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ohner, 1980; Schaefer, 1965). 이와 유사하게 Becker(1965)는 양육태도란 부모나 대리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일관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하였고, Fishbein와 Ajzen(1975)은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양식임을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지도하고 가르치는 행동으로 가정의 분위기, 경제적 지위, 사회문화적 배경, 부모-자녀의 개인적 요소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이진영, 2012에서 재인용). 국내의 연구에서도 서양의 연구들과 비슷한 개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남상인(1983)은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양육하는데 있어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고 자녀의 지적, 정서적 특성은 부모와 양육자가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양육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민(2005)은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의 질을 결정해주고 자녀의 모든 발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가정이라는 곳은 아동이 출생 후부터 부모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부모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모가 보이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격, 가치관, 태도, 사회성 등 심리사회적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며 지속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기질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Kagan(1984)의 기질가설(temperament hypothesis)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의 문제보다도 양육자의 문제가 아동의 불안전 애착과 상당한 연관이 있었다는 연구도 있고(van IJzendoorn, Sagi & Lambermon, 1992), 아동의 기질에 상관없이 양육자의 기민하고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안전 애착과 관련이 있었다는 연구(Boom, 1995)도 있는 등 아동의 기질보다는 양육자의 양육태도의 중요성

이 더욱 강조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기질보다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양육태도의 종류

① Symonds의 양육태도

처음으로 양육태도를 체계화하려고 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그는 정신분석학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양육태도를 크게 거부적-보호적, 지배적-복종적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과 같이 2개의 차원의 보호에는 간섭형과 불안형을,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을, 지배에는 기대형과 엄격형을, 복종에는 맹종(over dependence)형과 익애(over indulgence)형을 추가하여 다시 세분화하였다.

Symonds는 지배형의 부모는 자녀의 행동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녀가 이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그들의 자녀는 대체로 순종적이지만 투쟁적이고 불안해하는 행동이 많으며, 창조성이 부족하다고 한다. 또한 보호형의 부모는 자녀를 과보호하는 것으로 그들의 자녀는 사회적 성숙이 늦은 편이고 의존성이 높아 능동적으로 또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며 복종형의 부모는 거의 모든 시간을 자녀를 위해 소비할 정도로 맹목적이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는 정서적인 발달에 방해를 받고 유아적 상태로 머물게 될 위험성이 높으며 자기중심적이어서 지배적, 억지, 의존성 등을 많이 보이게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거부형의 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쉽게 적대감을 드러내거

나, 과도한 신체적 체벌을 하거나, 조건을 붙여 애정을 주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유형으로 그들의 자녀는 애정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반항, 공격, 거짓말, 도둑질, 신경증적 경향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원영미,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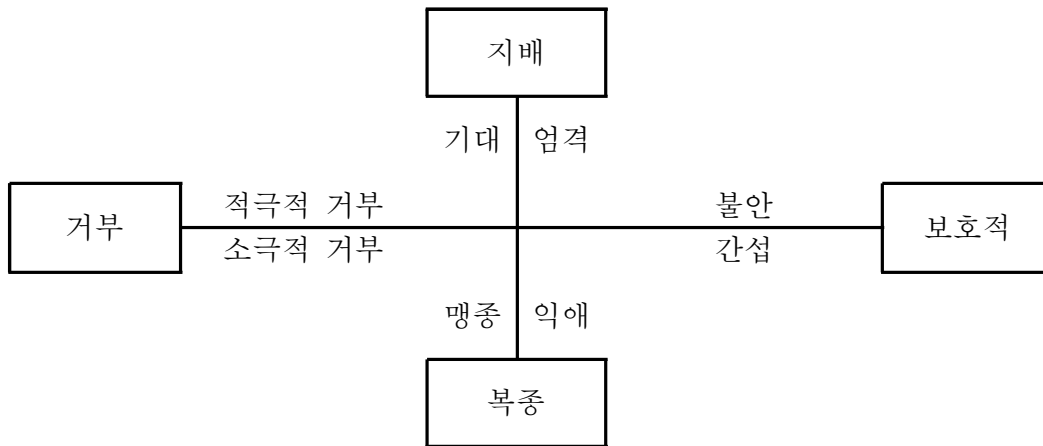


그림 1. Symonds의 양육태도 모형

Symonds의 이론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체계화 했다는 점에서 기여도가 높으나 임상적 사례에 근거하여 분류를 만들었기 때문에 부모 양육태도의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정상군에 대한 적용의 어려움도 있고 정상적인 기준에서 양육태도를 설명함에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주정현, 2004).

② Schaefer의 양육태도

Schaefer(1959)는 30년 간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하여 요인분석한 후에 Symonds와는 다른 이론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양육태도를 애정-적대(love-hostility)와 자율-통제(autonomy-control) 2개의 축을 통해 4가지 태도로 구분하여 순환모델(circumplex model)을 만들었으며 양육태도 모형은 그림 2를 통해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 Schaefer의 이러한 분류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타당도를 입증 받았는데(이원영, 1983; 황선명, 1994; Becker, 1964; Kinstler, 1961; Medinnus, 1967; Mussen, 1969, pp. 486) Schaefer의 모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던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따르면 다음과 같이 양육태도를 분류할 수 있다.

㉠ 애정-자율적 태도

이는 부모가 자녀를 애정적이면서도 자율을 허용하는 태도이며 가장 권고되는 양육태도이다(Baldwin, 1949; Becker, 1964; Kagan, 1969; McCord & Howard, Sears, 1981). 이러한 태도를 갖는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며 자녀의 의사존중을 통해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피한다고 한다. 또한 자녀에 대해 관용적이며 통제, 복종을 피하고 자녀가 부적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돕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의 자녀도 복종하지 않거나 약간의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원영, 1984).

㉔ 애정-통제적 태도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양육태도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려 하고, 자녀가 독립적으로 행동할 때 부모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자녀의 새로운 탐색을 제한하여 자녀의 창의성, 사교성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는 적대감을 억누른 상태로 지내게 된다고 한다(Kagan & Moss,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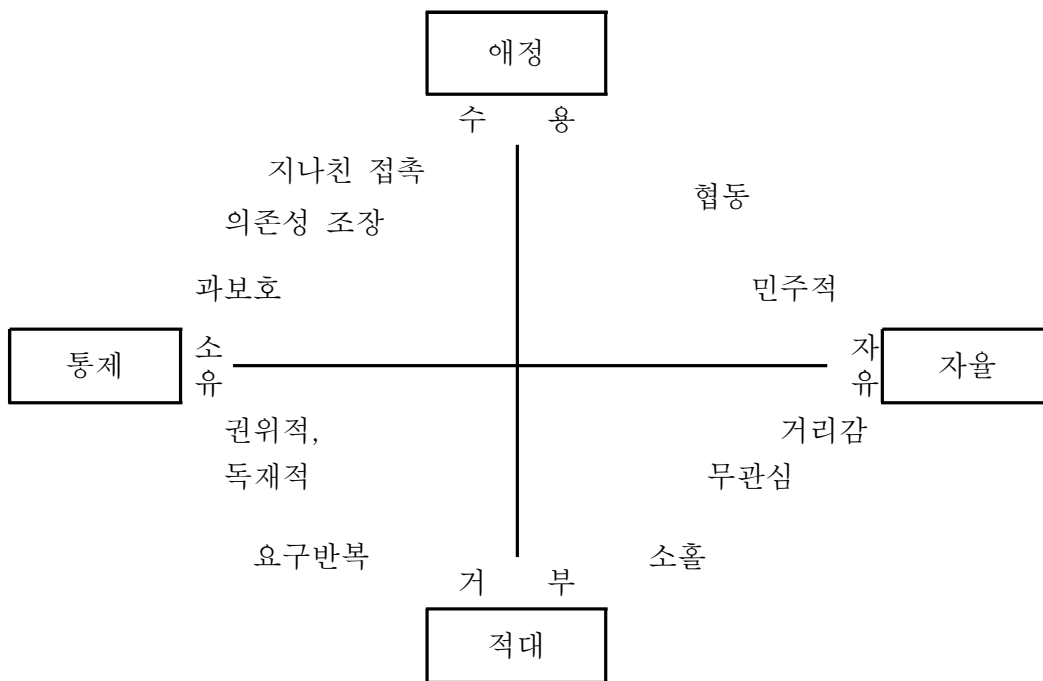


그림 2. 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

㉔ 적대-자율적 태도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지 못하면서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하고 자녀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는 양육태도이다. 이러한 부모 밑의 자녀는 자신의 행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며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인다고 한다 (Becker, 1964; Kessler, 1969, pp. 228).

㉕ 적대-통제적 태도

이러한 양육태도를 지니는 부모는 자녀를 온정 어리게 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체벌하거나 심리적 통제로 억제하는 태도를 보인다. 어떤 연구들 (Rosenthal, Finkelstein, Berkwits, 1962; Rosenthal, Finkelstein & Robertson 1959)에서는 적대-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 밑의 자녀가 자아에 대한 분노가 높고 내면화된 고통으로 인해 자녀가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퇴행하게 된다고 하며 이러한 부모에게 양육된 자녀들은 정신장애를 보고한다고 한다.

그 외 다른 연구자들의 양육태도 분류에 대해 살펴보면, Baumrind (1967)는 실험실과 가정에서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양육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부모의 양육태도를 독재형(authoritative), 권위형(autyoritatian), 허용형(permissve)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독재형(authoritative)의 부모는 온정적이고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자녀를 통제한다. 또한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고 자녀의 의사결정 또한 존중하며 긍정적으로 격려하는데 이러한 부모의 자녀들은 자기 신뢰감이 높고 적응력이 빠르며 타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삼가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둘째, 권위형(autyoritatian)은 자녀가 절대적으로 자신의 말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자녀와 부모간의 의사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기준에 어긋나거나 복종하지 않을 때는 처벌하는 유형으로 그들의 자녀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 대인관계에서의 불안정성을 보이며 좌절 인내력이 부족하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진민영, 2009). 셋째, 허용형(permissive) 부모들은 온정적이고 지배적이지 않으며 자녀의 행동에 지나치게 인내심이 많아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도 제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의 자녀는 충동조절의 어려움, 미숙함, 의존성을 보이며 자신의 욕구가 좌절될 때는 반항적이고 정서를 폭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Hoffman과 Saltzstein(1967)은 자녀가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능력이 부모의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며 양육태도를 강제 지시형(power assertion), 애정 철회형(love withdrawal), 추론 유도형(induction)으로 분류하였다.

양육태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는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가와 같은 애정적 태도와 거부의 측면,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통제하고 간섭하는지에 대한 통제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 차원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이 이러한 특징을 포괄적으로 잘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본 연구가 임상군과 정상군의 비교가 이루어지는 바, 정상군을 대상으로 양육태도의 특성을 분류한 Schaefer의 양육태도 이론을 본 연구에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의 차이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문경주, 오경자, 2002; Burbach, Kashani & Rogenberg, 1989; Kaslow, Rehm, & Siegel, 1984;

Medinnus, 1965), Steark 등(199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거부적,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이 높아질수록 대상 아동이 심한 정신 병리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고, 이진영(2012)의 연구에서는 정서장애 아동의 부모는 자신의 양육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한데 반해, 정서장애 아동은 부모가 보고한 양육태도만큼 긍정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가 직접 자신의 양육태도를 보고하는 것보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아버지 보고가 아닌 아동의 보고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 아동의 사회기술을 알아볼 것이다.

3) 아버지 양육태도

그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진데 반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지만 그간의 연구들은 긍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 인지발달, 사회적 유능감과 상관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Amato, & Rivera, 1999; Yogman, Kindlon, & Earls, 1995). 심지어 편부모로서의 아버지든 부-모로서의 아버지든,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경험하거나 안정애착을 하고 있을 경우 자녀가 학교생활을 즐기는 정도와 학업 성취와도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되었다(Nord, Brimhall, & West, 1997). 또한 아버지와 안정 애착된 아동들은 정서조절을 잘 하며 또래친구들과도 더 잘 지낸다고 한다(Cabrera et al., 2000). 청소년과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생물학적 친아버지이든 양아버지든 아버지와의 강하고 친밀한 애착은 바람

직한 학업적, 행동적 정서적 행동과 관련이 있었으며(Furstenberg, & Harris, 1993, pp. 150-176) 아버지의 높은 수준의 참여(involvement) 및 친밀감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아버지의 일시적인 참여를 경험하는 청소년보다 비행행동과 정서적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Furstenberg, & Marmer, 1998). 이렇듯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인지적 발달, 성취동기, 창의성 등 전반적인 발달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이희자, 정영숙, 1979; 김선영, 1985; 이미향, 2004; 김정주, 2008) 그 중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사회기술, 사회적 유능성과도 정적인 상관이 있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사회기술과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안정적인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의 하위 영역인 주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애착의 하위 영역 중에서도 아버지가 아동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인 ‘의사소통’ 영역이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주, 2009). 또한 노윤성(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판단을 믿어주는지, 자녀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와 같은, 부모와 자녀 간의 신뢰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성이 높아지지만 자녀가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고,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등 경험하는 ‘소외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아버지의 애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고(박광균, 2000; 은주영, 2002; Kindlon & Thompson, 1990;),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

태도는 자녀의 정서조절력을 높이거나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과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박혜경, 2002)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는 적절한 사회적 능력을 보이거나,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자녀는 정서 조절능력, 협동기술 등 사회적 능력의 부족을 보인다고 한다(이미향, 2004; 이영순, 1987; 이우철, 2010; 조성자, 2003; 채진영, 2009; Rinaldi & Howe, 2012; Roopnarine, Krishnakumar, Metindogan & Evans, 2006).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적대적이고 강압적인 등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서 및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회적 적응이나 사회기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적절한 권위가 있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기술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각 변인 간의 관계

1) 내재화,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

① 내재화 장애와 사회기술

내재화 장애 아동의 특징은 사회적 위축, 철수, 소극적인 태도 등을 나타내고, 두통, 복통 등의 뚜렷한 의학적 증거가 없는 신체 증상과 잘 울고 우울하며 지나치게 걱정이 많거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이무숙,

2009). 또한 공포감이나 환상에 빠지는 행동을 보이기 쉬운데 내재화 장애와 연관한 문제행동은 외현화 장애보다 공격적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덜 하기 때문에 외현화 장애보다 연구가 충분히 되지 않은 면이 있다(Kaslow & Thompson, 1998). 그러나 내재화 장애 아동들은 상기 증상들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회피 및 미성숙을 보이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거나 고립되게 되면서 발달 상 어려움을 겪게 되어(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강지현, 2009; Feng, Shaw, Silk, 2008) 내재화 증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다면 전반적인 사회 기술이 부족해질 수 있다(Falk, Dunlap, & Kern, 1996).

내재화 장애에 포함되는 우울장애와 사회기술 간의 연관성을 밝힌 흥미로운 연구는 Liber와 Lewinsohn(1973)의 연구인데 그들은 우울장애 환자들이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이 매우 낮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사회기술결함을 우울증의 주요 요인으로 가정하는 최초의 우울증 이론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한다(차주환, 2012). 이와 더불어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가 있는 아동이 협동, 상호작용, 사회적 독립과 같은 사회적 행동에서 유의미하게 사회기술의 부족을 보였다고 한다(Merrell, 1995). 또한 내재화 문제는 우울, 불안과 같은 증상으로 인지처리 과정을 방해하여 아동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학업 수행의 저하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Plante & Sykora, 1994) 학업 수행의 저하는 또래의 놀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내재화 문제와 관련한 인지처리 과정이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내재화 아동이 사회적 관계에서 철수되면서 사회기술을 잘 발달시키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적 지지 또한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여 증상이 심화될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내재화 장

애 아동의 증상에 대한 조기 치료 개입은 물론, 사회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기술에 대한 치료적 개입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

외현화 장애 아동의 특징은 감정과 행동의 조절이 되지 않아 공격성, 충동성, 비행 등의 문제를 보인다고 한다(Achenbach와 Edelbrock, 1978). 외현화 장애 아동의 경우 과소통제된 행동양상으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겪으며 빈번하게 치료에 의뢰가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사회기술의 부족과 강력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Quay, 1986).

외현화 장애가 있는 개인이 사회 적응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들의 외현화된 증상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기술의 결함도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이 시선접촉, 질문의 사용, 고개 끄덕임의 결함을 보였다고 한다(Wahler & Dumas, 1986). 또한 그들은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인 의도로 해석하게 되면서 공격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며 문제해결 상황에서 공격적인 대안반응을 주로 보인다고 한다(곽금주, 김하연, 윤진, 1991; 한명옥, 1999; Dodge, 1980; Dodge & Frame, 1982).

외현화 장애의 한 종류인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의 경우 행동이 크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신경한 행동 때문에 타인의 욕구나 감정을 살피지 못하면서 또래의 거부 및 사회적 고립의 기회를 증가시키게 된다(온싱글, 2003; Hinshaw, Zupan, Simmel, Nigg, & Melnick, 1997). 이러한 증상으로 ADHD 아동의 50%가 또래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따돌림

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elham & Bender, 1982; Whalen & Henker, 1992). 더불어 ADHD 증상이 심할수록 반사회적 행동이 두드러지는 반면,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은 더 저하되었다는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ADHD 증상의 심각도와 사회적 행동 간의 강한 상관성이 보고되었다(Merrell, 2001).

지금까지 내재화, 외현화 장애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두 장애 모두 사회기술의 결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회기술의 결함이 내재화, 외현화 장애를 유발함에 있어 선행되는지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사회기술이 부족할 경우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보이는 아동의 증상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기술은 한 개인이 스트레스 사건을 겪게 되었을 경우 그로 유발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 해줄 수 있는 보호적 요인이 이라고 하는데(Consortium on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1994; 문성원, 2013에서 재인용) 내재화, 외현화 장애 아동이 증상으로 인해 따돌림이나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경험할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회기술이 완충해줄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내재화, 외현화 장애 아동의 치료에서 아동의 사회기술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아버지 양육태도와 사회기술

그간의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사회기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낮은 수준의 사회기술을 보이며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자녀의 경우 적응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기술을 보인다고 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국내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안정적인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 중 주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애착 중에서도 아버지가 아동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인 ‘의사소통’ 영역이 사회적 유능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김현주, 2009). 또한 노윤성(200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의 판단을 믿어주는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을지와 같은 신뢰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사교성이 높아지며 문제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가정으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소외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적응능력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아버지의 애정적인 태도는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을 높이고(박광균, 2000; 은주영, 2002; Kindlon & Thompson, 1990;),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합리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기능적 정서조절력을 높이나 아버지의 강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격성과 역기능적인 정서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박혜경, 2002) 아버지가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는 적절한 사회적 능력을 보이지만, 적대적이거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의 자녀는 사회적 조절능력, 협동기술 등 사회적 능력의 부족,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보인다고 한다(이미향, 2004; 이영순, 1987; 이우철, 2010; 조성자, 2003; 채진영, 2009; Rinaldi & Howe, 2012; Roopnarine, Krishnakumar, Metindogan & Evans,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한 종류인 과잉간섭적

인 태도를 보일수록 자녀의 사회불안이 높아지고(안경미, 2007),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거부적 태도는 자녀의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문순옥, 2012; 문현실, 2006).

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내재화, 외현화 장애

그간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내재화 장애와 외현화 장애와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아동의 우울 및 불안,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Schaefer와 Bell(1957)은 양육패턴을 밝히는 연구에서 자녀를 억압하고 거부적이거나, 자녀에게 요구가 많고 자녀를 과도하게 소유하려는 하거나, 과도한 체벌을 하는 등의 부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정서적 장애를 유발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Barber(1994)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를 예측해주는 변인이고 행동에 대한 통제는 외현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버지가 부정적인 양육태도의 한 종류인 통제적이거나 적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자녀가 보이는 내재화, 외현화 문제가 높았고 자녀의 학업기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김혜영, 1999; Hart, DeWolf, & Burts, 1992; Kim, et al., 2003; Rapee, 1997; Rinaldi & Howe, 2012; Roopnarine, et al., 2006; Shaw, et al., 2001).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일수록 그들의 자녀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등 외현화 장애의 행동이 높아진다고 한다(Dishion, et al., 1994; Hart, et al., 1992; Muris, Bögels, Meesters, Kamp, & Oosten, 1996). 유사하게 6년 동안 유아들을 추적하여 실시된 장기연구에서는 적대적 양육태도

를 보이는 아버지 밑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Shaw, et al., 2001).

또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의 종류 중 한 종류인 방임적 양육태도가 두드러질수록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이용택, 2011). Paquette(2010)는 활성화 관계(activation relationship)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아버지가 아동이 외부 세계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이러한 탐색을 통해 외부 자극들에 개방적일 수 있도록 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로, 아버지가 아동의 욕구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보임으로써 아동이 스스로가 느끼는 한계를 극복하여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탐색하게 한다고 하였다. 최근 Gaumon과 Paquette(2013)는 내재화 장애와 아버지와 아동 간의 활성화 관계(activation relationship)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연구에서 아버지와 활성화 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아동들일수록 내재화 장애 점수가 더 높았고, 활성화 관계가 충분하지 않은 아버지의 경우 자녀에게 필요이상 통제적이거나, 지지적이지 않은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가 자녀를 처벌 혹은 체벌하거나, 심리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행사하면서 훈육을 할 경우 자녀들의 경우, 우울, 불안과 같은 높은 내재화 문제를 보인다고 한다(Bosmans, Braet, Beyers, Van Leeuwen, & Van Vlierberghe, 2011; Larzelere, & Kuhn, 2005; Turner, & Muller, 2004). 이혼 가정의 자녀를 연구한 한 연구에서도 이혼이라는 상황이 자녀에서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서 적절한 권위를 유지하면서 자녀에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버지 하의 자녀들은 더 낮은 수준의 우울과 분노감을 보고하며 자존감도 높았으나 방임적인 아버지 밑의 자녀들은 더 높은 내재화, 외현화 문제를 보고하였고 자존감도 낮은 수준이었다고 한다(Campana, Henderson, Stolberg, & Schum, 2008).

내재화 문제 청소년과 정상 집단 청소년을 비교한 국내의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 청소년의 경우 정상 집단에 비해 아버지로부터 더 자주 과잉간섭 및 기대, 방임,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손석한, 노경성,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외현화 문제행동이라 할 수 있는 비행행동으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고 이러한 청소년은 외현화 문제와 더불어 내재화 문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으며(김혜영, 1999) 아동이 스트레스를 지각할 때,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아동일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았다고 한다(정연옥, 2010).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면, 아버지의 적대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높고,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가운데, 아버지의 적대적이고 거부적이며 과잉통제 하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양육태도인 적대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를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였다.

5.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임상군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ADHD, 내-외 혼재 장애의 수준과 아동의 사회기술과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임상군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ADHD 내-외 혼재 장애,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아질수록 아동의 사회기술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2] 임상군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가설2-1. 임상군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3] 임상군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적대적인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가설3-1. 임상군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문제. 4] 임상군 아동의 사회기술과 정상군 아동의 사회기술 간 차이가 있는가?

가설4-1. 임상군 아동의 사회기술이 정상군 아동의 사회기술보다 저하된 수준을 보일 것이다.

[연구문제. 5] 임상군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 태도와 정상군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간 차이가 있는가?

가설5-1. 임상군 아동이 정상군 아동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적대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가설5-2. 임상군 아동이 정상군 아동에 비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더 통제적으로 지각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임상심리전문가가 근무하는 서울, 경기도, 경상남도 소재의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초등학교 1~6학년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58쌍이 설문을 응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아동은 임상군으로 정의하고 분석에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거된 설문 중, 지능지수 80 이하, 정신증, 발달장애는 배제하였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여 총 42쌍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임상군의 경우, 전문의로부터 받은 진단이 불안장애 혹은 강박장애, 분리불안장애, 우울장애, 틱장애, 정서적 문제(emotional disturbance), 게임중독, 부모-자녀 관계문제(Parent-Child Relational Problem), 달리 분류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Parent-Child Relational Problem; NOS), 사회기술 부족 등 진단적 분류가 다양하여 이를 통합적 관점에서 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 아동의 진단을 CBCL 6-18의 점수에 근거하여 내재화, 외현화, 내-외 혼재 장애로 다시 분류한 후, 통계적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외현화 행동에 대해 품행문제와 더불어 충동성을 포함한 주의집중력 문제도 포함하고 있어(Waldman, Lilienfield, & Lahey, 1995) ADHD 또한 외현화 장애의 하위 영역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CBCL 6-18의 외현화 척도의 경우 ‘남에게 잔인한 짓을 하거나 괴롭히고 못살게 군다, 싸움을 많이 한다’와 같이 공격성을 측정하는 문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ADHD를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CBCL 6-18의 ‘DSM ADHD’ 척도도 변인으로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상군 수집을 위해서는 임상군과 동일하게 서울, 경기도, 경상도 소재의 초등학교의 1~6학년 학생과 보호자 총 182쌍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상군이라 함은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지 않고 진단을 받지 않은 아동을 의미하는데 CBCL 6-18의 내재화, 외현화 척도에서 T점수 64점 이상과 DSM ADHD 척도에서 T점수 70점 이상으로 임상군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은 경우,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는 모두 제외하여 총 87쌍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정상군은 임상군과 비교하여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조건을 설정해야 하므로 점수에 근거해 내재화, 외현화, 내-외 혼재, ADHD 척도 문제로 동일하게 예측변인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CBCL 6-18에서 임상수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수며 경향성을 나타내는 점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내재화, 외현화, 내-외 혼재) 경향’이라고 명명하였다.

2. 측정도구

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

오성심과 이종승(1982)은 Schaefer의 양육태도 2개 차원(애정-적대, 자율-통제)에 선행연구를 토대로 2개 차원을 더 유형화 시켜 4개 차원으로 분류하고 각각 차원에서 15문항씩 총 60문항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를 구성하였다. 4개 차원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 차원으로 양육태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양극화 시켰다. 총 60문항 중, Schaefer의 양육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애정-적대, 자율-통제 30문항만 선택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양육태도가 애정적, 자율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적대적 양육태도와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바,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존의 역채점을 문항을 그대로 채점하고 역채점 문항이 아닌 문항을 역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적대적이거나 통제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Cronbach α 는 .861이었다.

표 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 척도의 내적합치도

하위척도명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애적-적대	15	1,3*,5,7,9*,11*,13,15*,17*,19,21*,23,25,27*,29*	.862
자율-통제	15	2,4,6,8*,10*,12,14*,16*,18*,20,22*,24*,26,28,30*	.657

2) 사회기술 평정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

Gresham과 Elliott(1990)는 아동·청소년의 사회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기술 평정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SSRS)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교사용, 학생용, 부모용의 3가지 종류이며 3-18세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초등학생용의 경우 협동, 주장, 공감, 자기조

절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Gresham과 Elliot(1990)의 사회 기술 평정 척도를 박순말(2005)이 변안한 학생용 34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가끔, 자주’와 같은 빈도를 기준으로 3점 척도로 평정되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기술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과 정상군의 사회기술을 비교하기 위하여 총점, 하위요인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전체 Cronbach α 는 .898이었다.

3)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6-18)

아동의 적응 및 정신과적 문제 행동을 부모가 3점 척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Achenbach와 Edelbrock(1983)가 제작한 것을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1990)가 번역하여 K-CBCL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표준화되었다. 이 척도는 사회능력척도(사회성, 학업수행, 총 사회능력)와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위축, 신체증상,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고의 문제, 주의집중 문제, 비행,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총 문제행동, 성문제, 정서불안정)로 나누어져 있다. 이 척도는 4~17세까지의 아동·청소년이 지난 6개월간 보인 문제행동을 부모가 0점에서 2점까지 평정하도록 한다. 아동을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은 부모가 평가한다는 점과 비교적 사용이 간편하여 다수에게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임상평가에 앞선 예비판별도구로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한미현, 유안진, 1995).

2001년에 일부 문항이 변경되고 DSM 진단척도(정서문제, 불안문제, 신체화문제, ADHD, 반항행동문제, 품행문제)가 추가되면서 CBCL6-18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국내에서 다시 표준화 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과

임상군 판별하기 위해 그리고 장애 수준을 분류하기 위해 CBCL6-18을 사용하였다. 오경자, 김영아(2010)는 CBCL6-18의 내재화, 외현화 장애의 경우 임상 수준은 T점수 64점을, ADHD 척도는 T점수 70점을 임상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정상군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CBCL 6-18의 Cronbach α 는 .917이었다.

3.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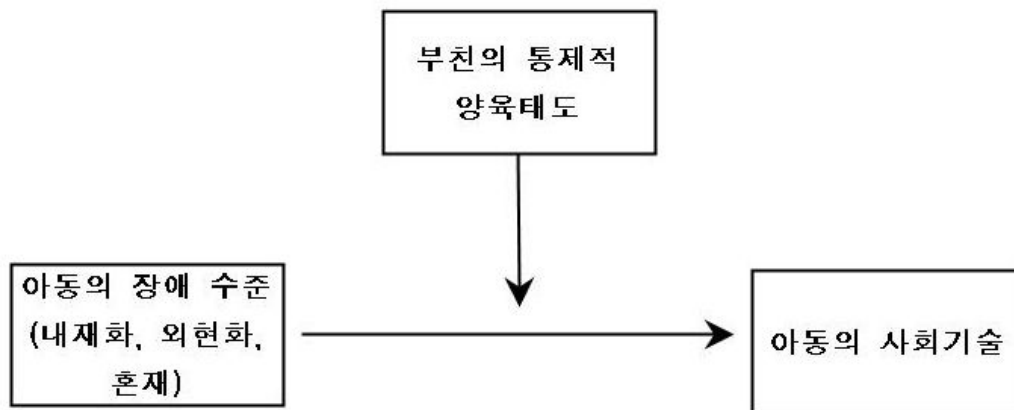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에 대한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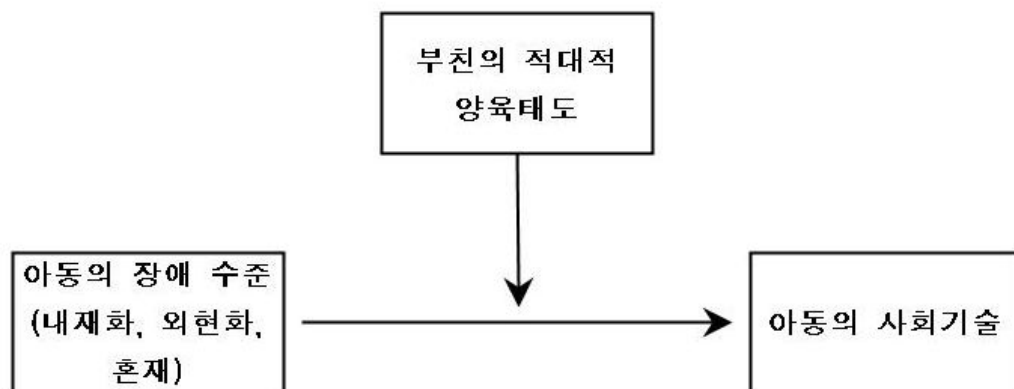


그림 4. 연구모형 :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에 대한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의 검증에 앞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을 위한 기술 통계가 사용되었고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상관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임상군 아동의 장애 수준과 아동의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항과 높은 상관을 가지게 되어 초래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중심화(centering)을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고, 2단계에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으며 내재화, 외현화, ADHD, 내-외 혼재 장애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따로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임상군과 정상군 간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의 차이, 사회기술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본 연구는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제시한 뒤, 가설 검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기술통계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군 42명, 정상군 87명으로 총 129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임상군의 경우 남자가 26명(61.9%), 여자가 16명(38.1%)이었고 3, 4학년이 각각 26.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9.93($SD=1.614$)세로 나타났다. 정상군의 경우 남자가 53명(60.9%), 여자가 34명(39.1%)이었고 5학년이 60.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10.7세($SD=.823$)였다. 임상군의 경우 내재화 장애가 13명(31%)이었고 외현화 장애가 11명(26.1%)이었으며, 내-외 혼재 장애가 18명(42.9%)이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군 (n=42)	정상군 (n=87)		임상군 (n=42)	정상군 (n=87)
사례수(%)			학년(%)		
남자	26(61.9)	53(60.9)	1	3(7.1)	2(2.3)
여자	16(38.1)	34(39.1)	2	4(9.5)	1(1.1)
평균연령(SD)	9.93(1.614)	10.7(.823)	3	11(26.2)	4(4.6)
장애분류(%)			4	11(26.2)	20(23.0)
내재화	13(31.0)		5	3(7.1)	53(60.9)
외현화	11(26.1)		6	10(23.8)	7(8.0)
내-외 혼재	18(42.9)				

2)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임상군, 정상군, 전체 집단의 내재화 장애, 외현화 장애, ADHD, 내-외 혼재 장애의 CBCB 6-18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과 아버지의 적대적, 통제적 양육태도, 사회기술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대상 집단에 따른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인	임상군(n=42)				정상군(n=87)			
	M	SD	최소값	최대값	M	SD	최소값	최대값
내재화	68.05	9.18	51	89	50.74	7.72	37	63
외현화	63.17	7.42	48	88	49.75	7.47	37	62
ADHD	62.76	7.33	50	82	53.07	4.31	50	64
내-외 혼재	61.02	5.68	52	86	45.95	7.44	30	58
통제	31.88	5.82	19	48	29.20	5.26	19	50
적대	29.52	7.84	15	48	24.57	6.68	15	51
사회	73.73	12.29	45	102	80.56	8.20	63	98

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내-외 혼재 장애의 수준과 사회기술, 아버지의 적대적, 통제적 양육태도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임상군의 내재화 장애, 외현화 장애, ADHD, 내-외 혼재 장애,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 사회기술의 상관정도는 표 4와 같다.

표 4.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임상군) (N=42)

변인	내재화	외현화	ADHD	내-외 혼재	통제	적대	사회 기술
내재화	1						
외현화	.355*	1					
ADHD	.267	.679**	1				
내-외 혼재	.648**	.816**	.731**	1			
통제적	.101	.079	.272	.210	1		
적대적	.193	.182	.444**	.389*	.650**	1	
사회기술	-.363*	-.307*	-.375*	-.444**	-.539**	-.341*	1

cf. * $p < .05$, ** $p < .01$

표 4를 보면 예측변인인 내재화 장애, 외현화 장애, ADHD, 내-외 혼재 장애와 조절변인인 적대적 양육태도, 통제적 양육태도 모두 사회기술과는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어($r=-.363, p<.05$; $r=-.307, p<.05$; $r=-.375, p<.05$; $r=-.444, p<.01$; $r=-.539, p<.05$; $r=-.341, p<.05$) 예측변인인 장애의 종류와 결과변인인 사회기술 중 한 변인이 증가할 때 다른 한 요인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재화, 외현화 장애와 적대적 양육태도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내재화, 외현화, ADHD, 내-외 혼재 장애는 통제적 양육태도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외 혼재 장애와 외현화 장애 간의 상관이 .80을 넘고 있으나 이는 내-외 혼재 장애가 내재화 척도와 외현화 척도가 합산된 값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 시에 내-외 혼재 척도와 내재화 척도, 외현화 척도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는 바, 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임상군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임상군 아동의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이 결과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단계와 3단계에서 설명력의 변화량을 통해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1) 임상군의 내재화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우선,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내재화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내재화 장애의 수준, 2단계에서는 내재화 장애 수준 + 통제적 양육태도, 3단계에서는 내재화 장애 수준 \times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임상군의 내재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는 표 5과 같다.

분석 결과, 내재화 장애는 사회기술에 대해 점수 전체 변량의 13.2%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40)=6.077, p<.05$, 내재화 장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486, p<.05$. 통제적 양육태도는 사회기술에 대해 22.5%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F(2, 39)=5.668, p<.05$, 통제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사회기술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684, p<.05$. 그러나 내재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

표 5. 임상군의 내재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 태도의 조절 효과

단계	예측변인	사회기술				
		<i>B</i>	<i>t</i>	<i>R</i> ²	ΔR^2	<i>F</i>
1	내재화	-.486	-2.485*	.132	-	6.077*
2	내재화	-.445	-2.345*	.225	.185	5.668*
	통제적 양육태도	-.648	-2.168*			
3	내재화 × 통제적 양육태도	.080	1.977	.297	.242	5.363

cf. * $p < .05$

2) 임상군의 외현화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동일하게 1단계에서는 외현화 장애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단계와 3단계에서 설명력의 변화량을 통해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외현화 장애의 수준, 2단계에서는 외현화 장애 수준 + 통제적 양육태도, 3단계에서는 외현화 장애 수준 ×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임상군의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임상군의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단계	예측변인	사회기술				
		<i>B</i>	<i>t</i>	<i>R</i> ²	ΔR^2	<i>F</i>
1	외현화	-.508	-2.037*	.094	.071	4.149*
2	외현화	-.357	-1.623	.336	.153	4.715*
	통제적 양육태도	-.783	-3.769*			
3	외현화 × 통제적 양육태도	-.008	-.256*	.337	.243	5.377*

cf. * $p < .05$

분석 결과, 외현화 장애는 사회기술에 대해 점수 전체 변량의 9.4%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40)=4.149$, $p < .05$, 외현화 장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508$, $p < .05$. 통제적 양육태도는

사회기술에 대해 33.6%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F(2, 39)=4.715, p<.05$, 통제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사회기술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783, p<.05$. 외현화 장애와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외현화 장애와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은 점수 전체 변량의 33.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3, 38)=5.377, p<.05$, 외현화 장애와 통제적 양육태도만 투입한 모형에 비해 추가적으로 24.3%의 설명력을 가졌다, $B = -.008, p<.05$. 즉, 통제적 양육태도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외현화 장애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임을 확인하였다. 외현화 장애 수준과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이 사회기술에 미치는 구체적인 양상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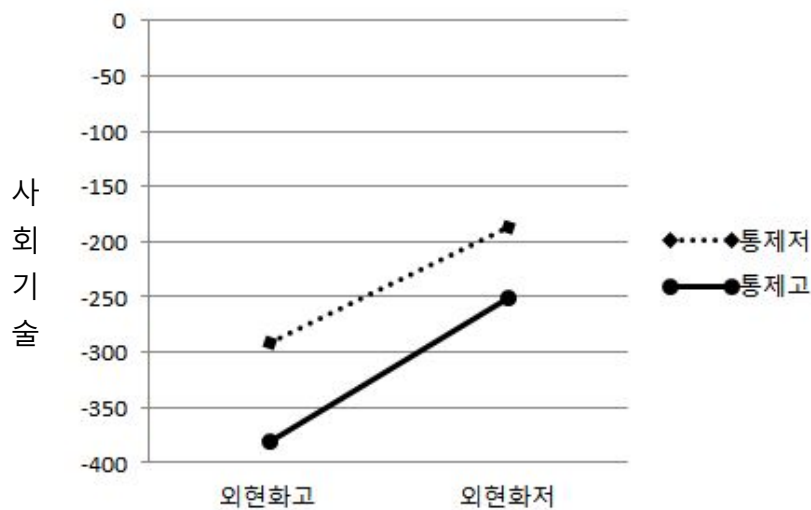


그림 5.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과 낮게 지각한 집단 모두 임상군 아동의 외현화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기술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외현화 수준이 높은 임상군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통제적 양육태도를 적게 지각하는 집단의 사회기술 수준이 더 높았다. 그리고 외현화 수준이 낮은 임상군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통제적 양육태도를 적게 보인다고 지각하는 집단의 사회기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기술이 다소 가파르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임상군 아동의 외현화 장애의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아동이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적게 지각할수록 사회기술이 상승하며 이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외현화 장애와 이로 부터 유발되는 사회기술의 저하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임상군의 ADHD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다음으로 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ADHD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갖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동일하게 1단계에서는 ADHD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2단계와 3단계에서 설명력의 변화량을 통해 조절변수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1단계에서는 ADHD 수준, 2단계에서는 ADHD 수준 + 통제적 양육태도, 3단계에서는 ADHD 수준 ×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임상군의 ADHD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임상군의 ADHD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단계	예측변인	사회기술				
		<i>B</i>	<i>t</i>	<i>R</i> ²	ΔR^2	<i>F</i>
1	ADHD	-.628	-2.555*	.140	-	6.527*
2	ADHD	-.510	-2.049*	.202	.161	4.932
	통제적 양육태도	-.544	-1.735			
3	ADHD × 통제적 양육태도	-.119	-2.108*	.285	.229	5.060*

cf. * $p < .05$

분석 결과, ADHD는 사회기술에 대해 점수 전체 변량의 14%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40)=6.257$, $p < .05$, ADHD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628$, $p < .05$. 사회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ADHD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통제적 양육태도는 사회기술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ADHD와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을 검증한 결과, ADHD와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항은 점수 전체 변량의 28.5%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F(3, 38)=5.060$, $p<.05$, ADHD와 통제적 양육태도만 투입한 모형에 비해 추가적으로 22.9%의 설명력을 보였다, $B = -.119$, $p<.05$. 즉, 통제적 양육태도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ADHD의 영향에 대한 조절효과임이 나타났다.

ADHD 수준과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이 사회기술에 미치는 구체적인 양상은 그림 6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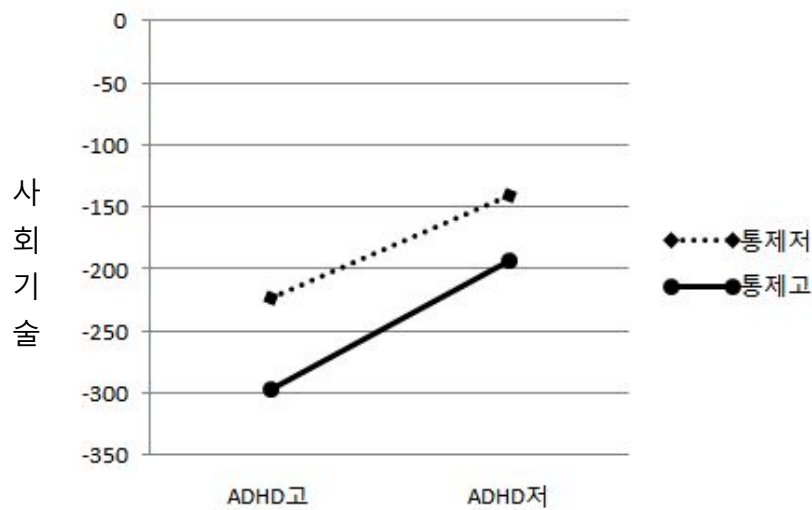


그림 6. ADHD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ADHD 집단과 낮게 지각한 ADHD 집단 모두 ADHD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ADHD 수준이 높은 임상군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통제적 양육태도를 적게 지각하는 집단의 사회기술 수준이 더 높았다. 그리고 ADHD 수준이 낮은 임상군 아동의 경우, 아버지가 통제적 양육태도를 많이 보인다고 지각하는 집단에 비해 통제적 양육태도를 적게 보인다고 지각하는 집단의 사회기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일수록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사회기술이 다소 가파르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임상군 아동의 ADHD의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아동이 아버지의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적게 지각할수록 사회기술이 상승하며 이는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ADHD와 이로부터 유발되는 사회기술의 저하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임상군의 내-외 혼재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임상군의 내-외 혼재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임상군의 내-외 혼재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단계	예측변인	사회기술				
		<i>B</i>	<i>t</i>	<i>R</i> ²	ΔR^2	<i>F</i>
1	내-외 혼재	-.958	-3.130**	.197	-	9.795**
2	내-외 혼재	-.841	-2.764*	.261	.233	6.880
	통제적 양육태도	-.546	-1.839			
3	내-외 혼재 × 통제적 양육태도	-.053	-.528	.266	.208	4.595

cf. * $p < .05$, ** $p < .01$

분석 결과, 내-외 혼재 장애는 사회기술에 대해 점수 전체 변량의 19.7%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40)=9.795$, $p < .01$, 내-외 혼재 장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958$, $p < .01$. 사회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 혼재 장애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통제적 양육태도는 사회기술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내-외 혼재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 임상군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1) 임상군의 내재화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임상군의 내재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는 표 9과 같다.

표 9 임상군의 내재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단계	예측변인	사회기술				
		<i>B</i>	<i>t</i>	<i>R</i> ²	ΔR^2	<i>F</i>
1	내재화	-.486	-2.485*	.132	-	6.077*
2	내재화	-.360	-2.063*	.361	.328	11.004**
	적대적 양육태도	-.763	-3.737**			
3	내재화 × 적대적 양육태도	0.23	1.039	.378	.329	7.711

cf. * $p < .05$, ** $p < .01$

분석 결과, 내재화 장애는 사회기술에 대해 점수 전체 변량의 13.2%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40)=6.077$, $p < .05$, 내재화 장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486$, $p < .05$. 적대적 양육태도는 사회기술에 대해 36.1%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F(2, 39)=11.004$, $p < .01$, 적대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사회기술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B=-.763$, $p<.01$. 그러나 내재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2) 임상군의 외현화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임상군의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임상군의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단계	예측변인	사회기술				
		<i>B</i>	<i>t</i>	<i>R</i> ²	ΔR^2	<i>F</i>
1	외현화	-.508	-2.037*	.094	.071	4.149*
2	외현화	-.357	-1.623	.336	.302	9.861**
	적대적 양육태도	-.783	-3.769**			
3	외현화 × 적대적 양육태도	-.008	-.256	.337	.285	6.438

cf. * $p < .05$, ** $p < .01$

분석 결과, 외현화 장애는 사회기술에 대해 점수 전체 변량의 9.4%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40)=4.149$, $p < .05$, 외현화 장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508$, $p < .05$. 적대적 양육태도는 사회기술에 대해 30.2%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F(2, 39)=9.861$, $p < .01$, 적대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사회기술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783$, $p < .01$. 그러나 외현화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임상군의 ADHD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임상군의 ADHD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임상군의 ADHD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단계	예측변인	사회기술				
		B	t	R ²	ΔR ²	F
1	ADHD	-.628	-2.555*	.140	-	6.527*
2	ADHD	-.282	-1.134	.314	.278	8.910**
	적대적 양육태도	-.728	-3.138**			
3	ADHD × 적대적 양육태도	-.040	-1.181	.338	.286	6.465

cf. * $p < .05$, ** $p < .01$

분석 결과, ADHD는 사회기술에 대해 점수 전체 변량의 14%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40)=6.527$, $p < .05$, ADHD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628$, $p < .05$. 적대적 양육태도는 사회기술에 대해 31.4%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F(2, 39)=8.910$, $p < .01$, 적대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사회기술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728$, $p < .01$. 그러나 ADHD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임상군의 내-외 혼재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임상군의 내-외 혼재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 임상군의 내-외 혼재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 효과

단계	예측변인	사회기술				
		<i>B</i>	<i>t</i>	<i>R</i> ²	ΔR^2	<i>F</i>
1	내-외 혼재	-.958	-3.130**	.197	-	9.795**
2	내-외 혼재	-.595	-1.972	.355	.322	10.746**
	적대적 양육태도	-.677	-3.097**			
3	내-외 혼재 × 적대적 양육태도	.049	1.300	.383	.334	7.854

cf. * $p < .05$, ** $p < .01$

분석 결과, 내-외 혼재 장애는 사회기술에 대해 점수 전체 변량의 19.7%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1, 40)=9.795$, $p < .01$, 내-외 혼재 장애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회기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958$, $p < .01$. 적대적 양육태도는 사회기술에 대해 35.5%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F(2, 39)=10.746$, $p < .01$, 적대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사회기술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677$, $p < .01$. 그러나 내-외 혼재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5. 집단 간 사회기술 차이

병원에 내원한 임상군 아동과 정상군 아동이 지각한 자신의 사회기술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사회기술의 차이는 표 13와 같다.

표 13. 집단 간 지각된 사회기술 차이

항목	집단	M	SD	t
사회기술 총점	임상군	73.56	12.54	3.161**
	정상군	80.56	8.20	
공감	임상군	23.15	4.25	2.933**
	정상군	25.39	3.04	
협동	임상군	22.26	4.02	2.484*
	정상군	23.85	2.92	
자기조절	임상군	19.52	3.72	2.898**
	정상군	21.36	3.05	
주장	임상군	20.97	4.11	2.652*
	정상군	22.89	2.61	

cf. * $p < .05$, ** $p < .01$

임상군 아동과 정상군 아동의 사회기술의 총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임상군 아동은 정상군 아동에 비해 좀 더 낮게 자신의 사회기술을 지각하였다($t(129)=3.61$, $p < .01$). 사회기술의 하위요인 간 집단 차이를 살펴보면, 정상군에 비해 임상군 아동이 공감, $t(129)=2.933$, $p < .01$, 협동, $t(129)=2.484$, $p < .05$, 자기조절, $t(129)=2.898$, $p < .01$, 주장, $t(129)=2.652$, $p < .05$ 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저하된 수준을 보였다.

6. 집단 간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차이

병원에 내원한 임상군 아동과 정상군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집단 간 사회기술과 동일하게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차이는 표 14와 같다.

표 14. 집단 간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의 차이

항목	집단	M	SD	t
적대	임상군	29.31	7.52	-3.506**
	정상군	24.57	6.68	
통제	임상군	31.39	5.42	-2.115*
	정상	29.02	5.26	

cf. * $p < .05$, ** $p < .01$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에 있어 임상군과 정상군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정상군에 비해 임상군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좀 더 적대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t(129) = -3.506$, $p < .01$. 또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임상군과 정상군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임상군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좀 더 통제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t(129) = -2.115$, $p < .05$.

V. 논 의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내재화, 외현화 장애를 경험하는 임상군 아동들은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또래의 지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거나, 소외되면서 심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잘 발달된 사회기술을 지닌 개인은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고, 분노 또한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군 아동의 치료에 있어 사회기술의 증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적절한 수준의 사회기술은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 하에서 더 잘 발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변화된 사회구조는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최근 연구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의 사회기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군 아동의 아버지들이 치료나 부모교육에 대한 참여는 아직 상당히 부족하여 치료 효과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아버지들의 치료 참여 부재로 인한 치료 연장 비용을 고려하면 아버지의 치료 참여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아버지의 치료 참여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임상군 아동이 아버지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임상군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태로 아버지의 치료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군 아동의 아버지의 어떠한 양육태도가 특정 정신병리와 함께 사회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이론적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의 치료에 있어 아버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신병리의 종류에 따라 효율적으로 부모교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이론적 정보를 제공하고 아버지 부정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검증을 통해 임상군 아동의 아버지가 치료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높이고, 아동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며, 아동이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기술을 강화하여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의 재발 예방과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대한 아버지 양육태도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한 42명의 임상군 아동을 대상으로 내재화, 외현화, 내-외 혼재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인 통제적, 적대적 양육태도가 사회기술에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외현화 장애에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특징과 더불어 부주의하고 충동적인 ADHD의 특성 또한 외현화 장애에 포함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ADHD도 예측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임상군 아동과 87명의 정상군 아동 간의 사회기술 및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임상군의 내재화, 외현화, ADHD, 내-외 혼재 장애는 사회기술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의 통제적, 적대적 양육태도 또한 사회기술과 유의한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즉, 장애의 종류가 심화될수록 그리고 아동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아동의 사회기술은 저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가설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화 장애 아동이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회피 및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고(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강지현, 2009; Feng, Shaw, Silk, 2008), 언어적·비언어적 반응

이 매우 부족하여 사회기술의 결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Falk, Dunlap, & Kern 1996). 또한 ADHD를 포함한 외현화 장애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부족을 보이며 공격적인 행동이 높았고(곽금주, 김하연, 윤진, 1991; 한명옥, 1999; 온싱글, 2003; Dodge, 1980), 과소 통제된 행동으로 사회기술과 강력한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Quay, 1986; Dodge & Frame, 1982)을 지지함은 물론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일수록 아동의 사회기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 또한 지지하는 결과이다(노윤성, 2007; 박광균, 2000; 은주영, 2002; 이우철, 2010; 차주환, 2012; Kindlon & Thompson, 1990; Rinaldi & Howe, 2012).

둘째, 임상군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외현화 장애와 ADHD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한 집단의 경우,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를 높게 지각한 집단과 동일하게 높은 수준의 외현화 장애, ADHD 수준을 겪고 있더라도 더 양호한 사회기술을 보였다. 이로 인해 본 연구 가설 2-1이 채택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이라고 여기는 집단에서 분노표현이 더 잦고 공격성이 높았으며 사회기술도 부족하다는 연구결과(김유진, 2010; 김혜영, 1999; 손소영, 2004; 황규숙, 1999; Dishion, Duncan, Eddy, Fagot, & Fetrow, 1994; Jackson, Kuppens, Sheeber, & Allen, 2011)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아버지가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두드러질 때 아동의 사회기술은 저하된다는 결과(김미영, 2005; 김희순, 1984; 박혜경, 2002; 최경순, 1993; Kelley, Smith, Green, Berndt, & Rogers, 1998)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외현화 장

애와 ADHD 아동의 경우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산만한 행동을 주로 보이며 양육자는 이러한 행동을 제재하고자 통제적 양육태도를 자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공희자, 문재우, 2004; 김경남, 2005; 유윤정, 1996; 장미경, 양숙미, 2005; 황혜순, 2008; Barkley, Murphy, 2006) 특히, 한국에서는 학업수행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부모의 자녀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최순자, 2007)도 있어 양육자가 외현화 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한국의 문화적 요소로 인해 아동에게 더 쉽게 통제적 양육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외현화 장애 아동과 아버지가 상호작용할 때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동의 증상으로 인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의도도 있겠으나 아동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 없이 통제적인 태도만을 보인다면 아동으로 하여금 적절한 자율성 및 독립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여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누적시킬 수 있고, 이면의 분노가 높아지면서 공격적인 모습이 두드러지게 되어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유발하고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외현화 장애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미하게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본 연구 결과는 아동의 성공적인 치료에 있어 어머니 한 명의 참여로는 부족하며 아버지 또한 치료에 참여하여 양육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 아동의 치료에 있어 아버지 참여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현화 장애 아동의 아버지의 경우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점검과 이를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의 부모교육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본 연구에 사용된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 척도 중 통제적 양육태도를 알아보는 문항들은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게 대한 일

을 아버지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라는 등 Miller, Nunnally, Wackman(2007)이 대화법에서 제시한 통제식 말하기의 유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방식보다는 아동의 행동이나 감정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고 아버지의 바람을 표현하면서도 아동의 감정을 배려할 수 있는 '탐색적 말하기', '자각적 말하기' 대화기술을 사용한다면 외현화 장애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하면서 대인관계에서도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여 더 나은 사회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적절히 잘 발달된 사회기술은 아동으로 하여금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여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병리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임상군 아동의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으나 내재화, 외현화, ADHD, 내-외 혼재 장애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1983년과 2007년에 각각 조사된 양육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전우경, 강정원, 2007)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1983년에 비해 2007년의 어머니 양육태도가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이었다고 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변화 이유를 핵가족화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을 이유로 꼽고 있다. 이것이 비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는 하나 이러한 영향이 아버지들에게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더불어 아버지의 역할 변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양육태도에 대한 많은 교육적 프로그램과 서적들이 나오면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또한 변화되어 아동에 대한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가 많이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에 사용된 사례들 중, 심리평가 보고서 확인이 가능한 대상들을

중점으로 살펴본 결과 임상군 아동 중, 사회기술의 부족으로 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사용된 사회기술척도에서는 자신의 사회기술에 대해 평균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평정한 경우가 있었고, 또한 자신의 사회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정한 아동의 경우, 심리평가의 일환으로 보호자가 작성하는 KPIC(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의 사회성 척도에서는 T점수 60, 70이상의 준임상, 임상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기도 하였다. 이는 아동이 자신의 증상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동이 설문을 직접 담당자나 연구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보호자가 보호자용 설문지와 아동의 설문지를 함께 걸어 제출하였기에 사회적 바람직성이 응답 경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의 감소와 더불어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아동 스스로에 대한 사회 기술의 평정이 양호하게 채점되면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또한 내재화, 내-외 혼재 장애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의 양육태도 중 통제적 양육태도, 적대적 양육태도 모두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기술에 대한 내재화, 내-외 혼재 장애의 영향이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라 다르지 않으므로 부모양육태도를 개선하는 방법 이외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사회기술에 대한 내재화, 내-외 혼재 장애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는데 내재화, 내-외 혼재 장애의 아동의 경우 내재화 문제를 감소하는 개입이 우선시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내재화 문제의 경우 개인내 변인을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내재화 장애의 주 특징인 우울과 불안은 낮은 자존감 및 낮은 자기가치감과 강한 상관성이 있으며(유하나, 2006; 최선윤, 이지민, 2008; Harter & Whitesell, 1996; Lewinsohn, Gotlib, & Seeley, 1997), 정서장애 아동의

경우 내적 귀인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이진영, 2012; Robinson, 1990)를 고려할 때, 낮은 자존감 및 내적 귀인이 내재화 문제와 상호작용 하여 사회기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으며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상군과 임상군의 사회기술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두 집단 간 사회기술의 총점을 비롯하여 사회기술의 하위영역인 공감, 협동, 자기조절, 주장 영역에서 임상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저하되어 있어 연구 가설 4-1이 채택되었다. 이는 내재화 장애 아동이 대인관계 상호작용의 회피 및 미성숙한 태도를 보이고(이숙희, 고인숙, 김미정, 2009; 강지현, 2009; Feng, Shaw, Silk, 2008),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이 매우 부족하여 사회기술의 결함이 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Falk, Dunlap, & Kern, 1996) ADHD를 포함한 외현화 장애 아동이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하고 쉽게 분노감을 드러내며, 친근하고 긍정적인 언어적 표현을 적게 하는 등 친사회적 행동이 부족하고(곽금주, 김하연, 윤진, 1991; Dodge, 1980; Swain & Zentall, 1990), 자신의 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상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결과들(Landau, Milich, & Diener, 1988)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임상군 아동의 치료에 있어 사회기술훈련이 수반되어야 함이 강조되는 대목이며 사회기술 증진을 통해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여 정신병리로부터의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 째, 정상군과 임상군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 간 차이가 있었는지 알아보았는데 통제적 양육태도, 적대적 양육태도 모두 집단 간 차이가 관찰되어 가설5-1, 5-2가 채택되었다. 즉, 정상군에 비해 임상군이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더 적대적이고 통제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아버

지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지 못할수록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문제행동과 부적상관이 있다는 연구(손소영, 2004; 정연옥, 2010)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내-외 혼재 문제를 지닌 아동들이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적대적이고 거부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조윤녕, 2002), 그리고 정상 아동이 정서장애 아동보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정서장애 아동은 정상 아동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통제적, 적대적으로 지각한다는 연구(이진영, 2012)과 같은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화 장애 아동의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에 대한 개입뿐만 아니라 내재화 장애를 포함한 임상군 아동의 치료에 있어 아버지의 적대적 양육태도에 대한 점검과 이를 수정하기 위한 개입 또한 필수적임을 함의하고 있다.

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임상군 아동의 장애와 사회기술, 부정적 양육태도를 동시에 분석하였으므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해석함에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연구 대상이 초등학생인 바, 연구결과를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기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이는 중학생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지각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김미영, 2005)를 고려해볼 때 청소년기는 또래와 동일시하는 반면 부모에게서는 거리를 두려는 발달적 특성으로 아버지 양육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게 때문에 본 연구를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데 있어서는 무리가 있겠다.

셋째, 자기보고식 평가의 큰 제한점으로 사회적 바람직성을 들 수 있겠는

데 아동이나 보호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으로 설문해 응하여 결과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아동이 직접 설문지를 연구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가 자신의 설문과 아동의 설문을 거두어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연구자가 수거하는 식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동의 입장에서는 보호자가 응답결과를 살필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여 편향된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임상군 아동 중 일부는 심리평가 보고와 달리 자신의 사회기술을 긍정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제 3자의 평가척도를 통해 사회기술을 평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넷째, 사회기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양육태도 또한 아동이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 실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떠한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평가하여 후속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 째, 정상군의 경우 집단 모집에 있어 5학년이 치우쳐 있어 정상군의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학년을 모집하여 연구를 시도하거나, 임상군과 정상군을 같은 학년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으며 기존의 연구들 또한 아버지 양육태도와 사회기술의 상관, 아버지 양육태도와 문제행동을 검증하는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소아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는 임상군 아동의 아버지 양육태도를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고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품행장애라고 불리는 비행청소년의 문제행동의 상관을 살피는 연구가 더러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소아정신건

강의학과에 내원하는 임상군 아동의 장애와 사회기술의 관계를 살피고, 아버지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조절효과로 검증하여 구체적인 장애 유형과 사회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어떠한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밝혀내었다는 점을 의의로 들 수 있다.

둘째, 외현화 장애 유형과 사회기술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태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밝혀내었다는 점은 외현화 장애가 있는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아동의 치료에 있어 어머니의 참여는 물론 아버지의 치료 참여와 양육태도 변화도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버지들이 업무로 인해 아동의 치료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아동의 증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 변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아동의 심리 치료가 성공적으로 종결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강조하고 동기를 유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사회기술의 관계를 밝히는 기존 연구들에서는 일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내에서 임상 수준의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 없이 아버지 양육태도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상군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최근 새로 표준화된 CBCL 6-18을 통해 정상군에서도 임상군 수준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통제하여 순수한 정상군만을 가지고 임상군 아동의 사회기술과 지각된 아버지 양육태도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는데 의의를 들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지현 (2009). 유아기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행동의 발달경로 : 유아의 기질과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현정, 국승희 (2010). 내재화 장애 청소년과 외현화 장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부모 보고와 청소년 보고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907-925.
- 고용노동부 (2013). 육아휴직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04에서 인출.
- 고인숙 (1998). 부모의 특성불안과 양육태도 및 아동의 문제행동,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고윤순 (2006). 부모의 참여정도와 치료종류가 알코올과 약물남용 청소년의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22, 161-190.
- 곽금주, 김하연, 윤진 (1991). 청소년의 반사회성과 사회정보처리 과정 간의 관계(I).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4(1), 145-156.
- 구연익, 노경란 (2012). 내재화, 외현화, 내-외 혼재 장애를 가진 아동들의 기질 및 성격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4), 1-20
- 김미영 (2005).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영 (1985). 부 -자녀관계가 자녀의 창의성, 성취욕구 및 학업성적에 미

- 치는 영향. 상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진 (2010).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사회성과 부모양육태도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 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숙 (2000). 청소년 애착과 지각향성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련성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2009). 학령후기 아동의 어머니 애착과 아버지 애착 및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1999).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균 (2013. 2. 8). 청소년들 마음이 아프다... 5명 중 1명 정신건강 빨간불.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3/all/20130208/52902602/1>에서 인출
- 김희순 (1984).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기 자녀인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은정 (2007). 한국 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8, 60-72
- 노윤성 (2007). 부-자녀간 애착이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현정, 이승희 (2007). 소아정신과 치료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 및 인식 :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23(1), 29-55.
- 문경주, 오경자 (2002).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1), 29-43.
- 문미영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성원 (2013). 한국판 초등학생용 사회기술 평정척도(K-SSRS-S:초등학생용)에 대한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013, 32(1)
- 민성길 (2004). 최신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 박광균 (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병호 (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희, 황지연, 정채은, 이예은, 유미숙 (201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통제적 양육태도 수준에 따른 아버지상 및 아동행복감의 차이. 상담학연구. 12(4), 1247-1260.
- 박혜경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보윤 (2008). 초등학교 2-6학년 아동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 및 부모의 양육태도와의 관련. 초등교육연구. 21(3), 467-489.
- 서봉연 (1982). 인간발달.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손석한, 노경성,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63, 605-615.
- 손소영 (2004). 취학 전 아동의 내재화·외현화 문제행동에 따른 기질 특성과 부모 양육태도의 차이.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욱, 우주영 (2013). 치료놀이를 적용한 요리활동 부모교육이 한부모가정 아버지-자녀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발달장애연구. 17(1), 1-26.
- 오경자 (1991). 아동·청소년문제행동분류 및 진단. 아동학회 추계 워크샵 자

료집, 5-20.

- 오경자, 김영아 (2010). ASEBA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매뉴얼. 서울. 휴노.
- 오경자, 이해련, 홍강희,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오선민 (1999). 사회적 기술 훈련이 대학생의 분노 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온싱글 (2003).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사회적 이해와 행동.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원영미 (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안진, 한미현 (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유하나 (2006). 청소년의 자기제시 동기와 자기효능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육근정 (2007). 외현화, 내재화 문제를 가진 아동집단의 Rorschach 반응 특성에 관한 분석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진아 (20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또래 애착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은주영 (2002).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금자 (2004). 모자상호작용이 아동의 사회기술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무숙 (2009). 초등학교 일반아동과 내재화 문제 아동의 애착유형 및 어머니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미향 (200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언어능력 및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순 (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우철 (2010).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자기 효능감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택 (201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수치심과 죄책감을 매개변인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숙희, 고인숙, 김미정(2009).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유아교육학, 12(6), 163-183.
- 이주영 (2009).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행동에 미치는 영향 :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 (2012). 소아기 정서장애 아동과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와 귀인 성향 비교. 대구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희자 정영숙 (1979). 아동 및 가족관계편 :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관심도와 자녀의 인성과의 상관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7(2), 83-105.
- 장휘숙 (2000). 애착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2), 105-119.
- 전성일, 이정호, 이기철, 최영민 (1996). 청소년의 우울증과 우울 행동 장애에서의 부모 양육 태도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7(1),

34-43.

- 전연이 (2006). 중학생의 집단따돌림과 사회적 기술,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우경, 강정원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198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중반의 차이 비교 연구(Schaefer의 양육태도 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25(2), 61-84.
- 전혜리 (2010). 아동·청소년 상담에서의 부모상담의 유형과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8(4), 1-18.
- 정연옥 (201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부모양육행동과 부적응 도식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315-333.
- 조성자 (200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영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내면화, 외현화 증상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진민영 (2009).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내외통제성과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주정현 (2004).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주환 (2012). 청소년의 신경증과 부모와의 애착안정성이 사회기술에 미치는 영향 : 주의조절과 공감의 매개역할.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진선 (2007). 부모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청소년기 애착이 이성 친구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 (1993).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윤, 이지민 (2008). 어머니의 우울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35-845.
- 최순자 (2007). 유아를 둔 한국과 일본 부모의 양육태도 비교.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2(1), 111-130.
- 최지희 (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정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영옥 (1999). 품행장애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과정에 관한 연구 : 반사회적 행동과 우울성향을 중심으로. *Graduate School Research Paper*. 7, 463-482.
- 한은주 (1998). 기혼 남성의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황규숙 (1999). 부모양육 태도와 중요한 타인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명 (1994).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사고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혜순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및 자기 유능감 간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5). *Developmental issues in assessment, taxonomy, and diagnosis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Cicchetti, Dante (Ed); Cohen, Donald J. (Ed), (1995).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1: Theory and methods*. Wiley series on personality processes. pp. 57-80.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1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78). *The classification of child psychopathology: a review and analysis of empirical efforts*. *Psychological bulletin*, *85*(6), 1275.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lbayrak-kaymak, D. (1999).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Screening for both problem youth*.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Advancement of Counselling*, *21*(2), 125-137.
- Asher, S. R., & Taylor, A. R. (1981). *Social outcomes of mainstreaming: Sociometric assessment and beyond*. *Exceptional Education Quarterly*.
- Amato, P.R., & Rivera, F.(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375-384.
- Anthony, J. L., Lonigan, C. J., Hooe, E. S., & Phillips, B. M. (2002). *An affect-based, hierarchical model of temperament and its relations with internalizing symptomatology*.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1*(4), 480-490.
- Baldwin, A. L. (1949). *The effect of home environment on nursery school*

- behavior*. Child Development, 20(2), 49-61.
- Bandura, A., & Walters, R. H. (1959). *Adolescent aggression*. Ronald Press.
- Barber, B. K., Olsen, J. E., & Shagle, S. C. (1994).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th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4), 1120-1136.
- Barkley, R. A., & Murphy, K. R. (2006).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clinical workbook (Vol. 2)*. Guilford Press.
- Bates, J. E., & Bayles, K. (1988). *Attachment and the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s*. Clinical implications of attachment, 253-299.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1, 169-208.
- Beger, E. H. (1981). *Parents AS partner in education*. St. Louis; The C.V. Mosby Company.
-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 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infant and father-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692-705.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érot, C., Friedman, D., Snidman, N., & Faraone, S. V. (2001). *Fur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0)*, 1673-1679.

Biederman, J., Rosenbaum, J. F., Bolduc-Murphy, E. A., Faraone, S. V., Chaloff, J., Hirshfeld, D. R., & Kagan, J. (1993). *A 3-year follow-up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behavioral inhibi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2(4)*, 814-821.

Boom, D. C. (1995). *Do first year intervention effects endure? Follow up during toddlerhood of a sample of Dutch irritable infants.* Child development, *66(6)*, 1798-1816.

Booth, C. L., Rose-Krasnor, L., McKinnon, J., & Rubin, K. H. (1994). *Predicting social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The role of preschool attachment security and maternal style.* Social Development, *3(3)*, 189-204.

Bosmans, G., Braet, C., Beyers, W., Van Leeuwen, K., & Van Vlierberghe, L. (2011). *Parents' power assertive discipline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ts: The role of attachment.*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11(1)*, 34-55.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 3 (Vol. 1). Random House.

Bratton, S., & Landreth, G. (1995). *Filial therapy with single parents: Effects on parental acceptance, empathy, and stres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4(1)*, 61.

Burbach, D. J., Kashani, J. H., & Rosenberg, T. K. (1989). *Parental*

- bonding and depressive disorders in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0(3), 417-429.
- Campana, K. L., Henderson, S., Stolberg, A. L., & Schum, L. (2008). *Paired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child custody and children's emotional adjustment to divorce.*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48(3-4), 1-20.
- Cantwell, D. P. (1996). *Attention deficit disorder: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8), 978-987.
- Cantwell, D. P. (1996). *Classification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7(1), 3-12.
- Carlson, M. J. (2006). *Family structure, father involvement, and adolescent behavioral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1), 137-154.
- Cole, D. A., & Carpentieri, S. (1990). *Social status and the comorbidity of child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6), 748.
- Consortium on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1994). The School-based promotion of social competence;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In Haggerty, L. R, Garmezy, N., & Rutter, M. (Eds.),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wen, E. L., Pederson, A., Babigian, H., Isso, L. D., & Trost, M. A.

- (1973). *Long-term follow-up of early detected vulnerabl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3), 438.
- Crawford, N. A., Schrock, M., & Woodruff-Borden, J. (2011). *Child internalizing symptoms: Contributions of child temperament, maternal negative affect, and family functioning*.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42*(1), 53-64.
- Dekker, M. C., Ferdinand, R. F., Van Lang, N. D., Bongers, I. L.,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7).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from early childhood to late adolescence: gender differences and adult outcom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8*(7), 657-666.
- Dishion, T. J., Duncan, T. E., Eddy, J. M., Fagot, B. I., & Fetrow, R. (1994). *The world of parents and peers: Coercive exchanges and children's social adaptation*. *Social Development*, *3*(3), 255-268.
- Dodge, K. A. (1983).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386-1389.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162-170.
-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620-635.
- Doucet, A. (2009). *Dad and baby in the first year: Gendered responsibilities and embodiment*.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624*(1), 78-98.

- Dumont, C., & Paquette, D. (2008). *Father-child attachment and paternal involvement: Two key concepts to better predict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Revue de Psychoéducation*, Vol 37(1), 2008, 27-46.
- Eisenberg, N., Sadovsky, A., Spinrad, T. L., Fabes, R. A., Losoya, S. H., Valiente, C., & Shepard, S. A. (2005). *The relations of problem behavior statu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effortful control, and impulsivity: concurrent relations and prediction of change*. *Developmental psychology*, 41(1), 193.
- Elliott, S. N., & Gresham, F. M. (1993). *Social skills interventions for children*. *Behavior modification*, 17(3), 287-313.
- Falk, G. D., Dunlap, G., & Kern, L. (1996). *An analysis of self-evaluation and videotape feedback for improving the peer interactions of students with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ehavioral Disorders*.
- Feng, X., Shaw, D. S., & Silk, J. S. (2008).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nxiety symptoms among boys across early and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1), 32.
- Foster, S. L., & Ritchey, W. L. (1979). *Issues in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4), 625-638.
- Furstenberg, F. F., & Harris, K. (1993) *When and why fathers matter: Impacts of father involvement on the children of adolescent mothers*. In R. Leman & T. Ooms(Eds.), *Young unwed fathers:*

Changing roles and emerging policie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Goldstein, A. P. (1999). *The prepare curriculum: Teaching prosocial competencies.* Research Press (IL).

Gresham, F. M., & Elliott, S. N.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ive Behavior and Social Skills Issues in Definition and Assessment.*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1(1)*, 167-181.

Gresham, F. M., & Elliot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SSRS).* American Guidance Service.

Harris, K., Furstenberg, F. F., JR, & Marmer, J. K., (1998). *Paternal involvement with adolescents in intact families: The influence of fathers over the life course.* Demography, *35(2)*, 201-216.

Harter, S., & Whitesell, N. R. (1996). *Multiple pathways to self-reported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761-778.

Hart, C. H., DeWolf, D. M., & Burts, D. C. (1992). *Linkages among preschoolers' playground behavior, outcome expectations, and parental disciplinary strategies.*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3(4)*, 265-283.

Heilbrun Jr, A. B. (1976). *Identification with the father and sex-role development of the daughter.* Family Coordinator, 411-416.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us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s.* Psychological bulletin,

111(1), 127.

- Hinshaw, S. P., Zupan, B. A., Simmel, C., Nigg, J. T., & Melnick, S. (1997). *Peer Status in Boys With and Without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Predictions from Overt and Covert Antisocial Behavior, Social Isolation, and Authoritative Parenting Beliefs*. *Child Development*, *68*(5), 880–896.
- Hoffman, M. L., & Saltzstein, H. D. (1967). *Parent discipline and the child's moral develop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45.
- Gaumon, S., & Paquette, D. (2013). *The father-child activation relationship and internalising disorders at preschool ag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3*(3-4), 447–463.
- Greco, L. A., & Morris, T. L. (2002). *Paternal child-rearing style and child social anxiety: Investigation of child perceptions and actual father behavior*.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24*(4), 259–267.
- Grossmann, K., Grossmann, K. E., Fremmer Bombik, E., Kindler, H., & Scheuerer Englisch, H. (2002). *The uniqueness of the child-father attachment relationship: Fathers' sensitive and challenging play as a pivotal variable in a 16 year longitudinal study*. *Social development*, *11*(3), 301–337.
- Jackson, J., Kuppens, P., Sheeber, L. B., & Allen, N. B. (2011). *Expression of anger in depressed adolescents: The role of the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463-474.

- Kagan, J., & Moss, H. A. (1962). *Birth to maturity: The Fels study of psychological development*. pp. 340-341
- Kagan, J., & Snidman, N. (1991). *Temperamental factors in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6*(8), 856.
- Kagan, J., & Snidman, N. (1999). *Early childhood predictors of adult anxiety disorders*. *Biological Psychiatry*, *46*(11), 1536-1541.
- Kaslow, N. J., Rehm, L. P., & Siegel, A. W. (1984). *Social-cognitive and cognitive correlates of depression in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4), 605-620.
- Kaslow, N. J., & Thompson, M. P. (1998). *Applying the criteria for 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s to studies of psychosocial interven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146-155.
- Kelley, M. L., Smith, T. S., Green, A. P., Berndt, A. E., & Rogers, M. C. (1998). *Importance of fathers' parenting to African-American toddler'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21*(4), 733-744.
- Keltner, D., & Kring, A. M. (1998). *Emotion, social function, and psychopatholog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2*(3), 320.
- Kessler, J. W. (1966). *Psychopathology of childhood*(p. 228).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pp. 487.
- Kovacs, M. (1989). *Affective disorder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44*(2), 209.

- Kim, I. J., Ge, X., Brody, G. H., Conger, R. D., Gibbons, F. X., & Simons, R. L. (2003). *Parenting behaviors and the occurrence and re-occurrence of depressive symptoms and conduct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4)*, 571-583.
- Kindlon. D. & Thompson. M. (1990). *Raising cain: Protection the emotional life of boys*. 문용린 역(2007). *아들 심리학*. 서울: 아람드 미디어.
- Landau, S., Milich, R., & Diener, M. B. (1998). Peer relations of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Reading & Writing Quarterly Overcoming Learning Difficulties, 14(1)*, 83-105.
- Landau, S., & Moore, L. A. (1991). *Social skill deficits in children with in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School Psychology Review*.
- Larzelere, R. E., & Kuhn, B. R. (2005). *Comparing child outcomes of physical punishment and alternative disciplinary tactics: A meta-analysi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8*, 1-37.
- Lewinsohn, P. M., Seeley, J. R., & Gotlib, I. H. (1997). *Depression-related psychosocial variables: Are they specific to depress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3)*, 365.
- Libet, J. M., & Lewinsohn, P. M. (1973). *Concept of social skill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behavior of depressed persons*.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0(2)*, 304.
- Lynn, D. B. (1974). *The father: His role in child development*.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pp.99-103.
- Madan-Swain, A., & Zentall, S. S. (1990). Behavioral comparisons of liked and disliked hyperactive children in play contexts and the behavioral accommodations by their classmat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2)*, 197.
- Masten, A. S., Roisman, G. I., Long, J. D., Burt, K. B., Obradović, J., Riley, J. R., & Tellegen, A. (2005). *Developmental cascades: linking academic achievement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symptoms over 20 years*. *Developmental psychology, 41(5)*, 733.
- Mash, E. J., & Terdal, L. G. (1997). *Assessment of child and family disturbance*. *Assessment of childhood disorders*.
- McCord, W., McCord, J., & Howard, A. (1961). *Familial correlates of aggression in nondelinquent male children*.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2(1)*, 79.
- McFall, R. M. (1982).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the concept of social skills*. *Behavioral assessment*.
- Medinnus, G. R. (1965). *Adolescents' self-acceptance and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2)*, 150.
- Merrell, K. W., & Boelter, E. (2001). *An Investigation of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Behavior and ADHD in Children and Youth Construct Validity of the Home and Community Social Behavior Scales*.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9(4)*,

260-269.

- Merrell, K. W. (1995).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kills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childhood: Construct validity of 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13*(3), 230-240.
- Mick, M. A., & Telch, M. J. (1998). *Social anxiety and histor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adul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1), 1-20.
- Miller, S., Miller, P., Nunnally. E. W., & Wackman. D. B. (2007). 부부대화 I 협동적 결혼 기술. (채규만, 최규련 공역). 서울 : 부부대화법 워크샵 자료집.
- Muris, P., Bögels, S., Meesters, C., van der Kamp, N., & van Oosten, A. (1996). Parental rearing practices, fearfulness, and problem behaviour in clinically referred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5), 813-818.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J., & HUSTON, C. (1969). *Childhoo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pp.486.
- Nigg, J. T. (2006). *Temperament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3-4), 395-422.
- Nord, C., Brimhall, D. A., & West, J. (1997). *Fa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schools*. Washington, DC: Office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mprovement, U.S. Department of Education.
- Oden, S., & Asher, S. R. (1977). *Coaching children in social skills for friendship making*. *Child Development*, 495-506.

- Parker, G. (1983). *Maternal overprotection: A risk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New York: Grune & Stratton.
- Paquette, D., & Bigras, M. (2010). *The risky situation: A procedure for assessing the father-child activation relationship*.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0*(1-2), 33-50.
- Patterson, G. R., Capaldi, D. M., & Rolf, J. E. (1990). *A mediational model for boys'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141-163.
- Pelham, W. E., & Bender, M. E. (1982). *Peer relationships in hyperactive children: Description and treatment*. *Advances in Learning & Behavioral Disabilities*. *1*, 365-436.
- Plante, T. G., & Sykora, C. (1994). *Are stress and coping associated with WISC-III performance amo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0*, 59-762.
- Puig-Antich, J. (1982). *Major depression and conduct disorder in prepubert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1*(2), 118-128.
- Rapee, R. M. (1997). *Potential role of childrearing practices in the development of anxiety and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7*(1), 47-67.
- Renouf, A. G., Kovacs, M., & Mukerji, P. (1997). *Relationship of depressive, conduct, and comorbid disorders and social functioning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6*(7), 998-1004.

- Rettew, D. C., Althoff, R. R., Dumenci, L., Ayer, L., & Hudziak, J. J. (2008). *Latent profiles of temperament and their relations to psychopathology and wellnes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7*(3), 273–281.
- Rinaldi, C. M., & Howe, N. (2012). *Mothers' and fathers' parenting styles and associations with toddlers' externalizing, internalizing, and adaptive behavi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7*(2), 266–273.
- Rinn, R. C., & Markle, A. (1979). *Modification of social skill deficits in children. Research and practice in social skills training*, Plenum Publishing Corporation. pp.110–111.
- Rubin, K. H., & Mills, R. S. (1990). *Maternal beliefs about adaptive and maladaptive social behaviors in normal, aggressive, and withdrawn preschooler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4), 419–435.
- Rubin, K. H., & Mills, R. S. (1991). *Conceptualizing developmental pathways to internalizing disorders in childhood*.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Revue canadienne des sciences du comportement*, *23*(3), 300.
- Rohner, R. P. (1980). *Worldwide tests of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An overview*. *Cross-Cultural Research*, *15*(1), 1–21.
- Roopnarine, J. L., Krishnakumar, A., Metindogan, A., & Evans, M. (2006). *Links between parenting styles, parent - child academic interaction, parent - school interaction, and early academic skills*

- and social behaviors in young children of English-speaking Caribbean immigrant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1(2), 238-252.
- Rosenthal, N. J., Finkelstein, M., & Berkwits, G. K. (1962). *Father-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problems.* Child Development, 61, 135-139.
- Rosenthal, M. J., Finkelstein, M., Ni, E., & Robertson, R. E. (1959). *A study of mother-child relationships in the emotional disorders of children.*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60, 65.
- Russell, A. (1996). *Positive parenting and boys' and girls' misbehaviour during a home obser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291-308.
- Sears, R. R. (1961). *Relation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s to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3(3), 466.
- Segrin, C., Hanzal, A., Donnerstein, C., Taylor, M., & Domschke, T. J. (2007). *Social skill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stress.* Anxiety, stress, and coping, 20(3), 321-329.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
- Schaefer, E. S., & Bell, R. Q. (1957). *Patterns of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and the famil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4(3), 391.

- Schaefer, E. S., & Bell, R. Q. (1958). *Development of a parental attitude research instrument*. *Child Development*, 29(3), 339-361.
- Shaw, D. S., Owens, E. B., Giovannelli, J., & Winslow, E. B. (2001). *Infant and toddler pathways leading to early externalizing disord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0(1), 36-43.
- Shaffer, D. (1985). *사회성격발달*. (송길연, 이지연 공역). 서울 : Cengage Learning(2005).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Brunner : Mazel.
- Turner, H. A., & Muller, P. A. (2004). *Long-term effects of child corporal punishment on depressive symptoms in young adults: Potential moderators and medi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25, 761-782.
- Valiente, C., Eisenberg, N., Smith, C. L., Reiser, M., Fabes, R. A., Losoya, S., ... & Murphy, B. C. (2003). *The relations of effortful control and reactive control to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A longitudinal assess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6), 1171-1196.
- van IJzendoorn, M. H., Sagi, A., & Lambermon, M. W. (1992). *The multiple caretaker paradox: Data from Holland and Israel*.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57), 5-24.
- Waldman, I. D., Lilienfeld, S. O. and Lahey, B. B. (1995). *Toward construct validity in the childhood disruptive behaviour*

disorders: classification and diagnosis in DSM-IV and beyond.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17, 323-363.

Walker, H. M. & Hops (1976). *Hyman* Increasing academic achievement by reinforcing direct academic performance and/or facilitative nonacademic respon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8(2), 218-225.

Weiss, L. H., & Schwarz, J. C.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types and older adolescents' personality, academic achievement, adjustment, and substance use.* Child development, 67(5), 2101-2114.

Yogman, M. W., Kindlon, D., & Earls, F. (1995). *Father involvement and cognitive/behavioral outcomes of preterm infant,*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4, 58-66.

ABSTRACT

Relationships Among the Children's Internalizing, Externalizing Disorders and Social Skills and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Styles by perceived the Children on Social skills

Hyo Jeong Lyu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moderating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styles perceived by the children (hostility & controll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isorders, and their social skills, and tried to compare children with internalizing, externalizing disorders, their social skills, and perceived father's parenting styles with those of normal group. Forty two children with psychological

problems and ninety eight normal children were administered father's parenting style, and social skills scale. Also their parents completed CBCL for their children. The children with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disorder were classified based on CBCL results.

The results are the follows:

First, the children with internalizing or externalizing disorder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kills. Father's parenting style (hostility, controlling style) perceived by their children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kills.

Second, the results of clinical group analys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controlling parenting style showed moderating externalizing disorder on social skills. Controlling parenting styles also showed moderating externalizing disorder such as ADHD on social skills.

Third,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linical and normal groups in terms of their social skills and perceived father's parenting styles. This means that the clinical group reported lower social skills than those of normal group, and they perceived more controlling and hostility parenting styles than those of normal group.

This study demonstrated the role of father's controlling parenting style as a moderator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externalizing disorders such as ADHD.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fathers having the children with externalizing disorders including ADHD would be better of attending parent education class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hildren with the fathers using more autonomous parenting styles

rather than control parenting style showed better social skills, that could contribute to better social relationship with their friends. The children with good social relationships can deal with their stress or problems effectively.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further study were indicated.

Key words : father, parenting style, internalizing disorder, externalizing disorder, ADHD, social skill, child psychiatry, moderating effects

부 록

부록 1. 설문지 표지 및 참여자 동의서

부록 2.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 양육태도 설문지

부록 3. 사회기술 척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 현재 석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주제는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지는 보호자용 질문지와 아동용 질문지 두 종류이며, 질문지를 하시는데 약 10~15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귀하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예: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는 수집하지 않을 것이며 **기재해주신 정보는 오로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연구에 포함된 질문들에는 별도의 정답이나 오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평소 생각과 느낌대로 답해주시면 됩니다. **제시되는 모든 질문들에 답해주신다면 본 연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귀하께서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보호자가 작성하는 설문지의 경우 표준화가 되어 있는 바, 결과를 원하시는 분께는 보호자의 e-mail을 기재해 주시면 무료로 결과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대규모 연구인지라 시간은 소요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자에게 e-mail로 연락해주십시오. 연구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지도교수 : 채 규 만
 연구자 : 류 효 정
 e-mail : flourish99@hanmail.net



-----연구 동의서-----

본 연구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 아니오		
결과를 받을 e-mail			
보호자 성함	(인)	자녀의 이름	
자녀의 학년과 성별	학년	남 / 여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신다면 질문지 작성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학년 남 / 여 이름 :

다음의 질문은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시험처럼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평소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대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세요. 가능한 **한 문제도 빠트리지 말고 작성해 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아버지는 나와 다정하게 자주 이야기를 하신다.				
2	아버지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까지도 도와주신다.				
3	아버지는 화가 날 때 식구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많다.				
4	아버지는 "자기 일은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다.				
5	아버지는 내가 실수하여 일을 잘못했을 경우라도 꾸짖기보다는 애썼다고 격려해 주신다.				
6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는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면 내게 맡겨 주신다.				
7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놀이를 하거나 휴일에는 가족 나들이 가기를 좋아하신다.				
8	우리 집은 아버지 말씀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야단맞기 쉽다.				
9	큰 잘못이나 이유 없이도 아버지는 나를 꾸짖는 경우가 많다.				
10	내가 하는 일이 옳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못하게 한다.				
11	아버지는 내 말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12	아버지는 나의 말과 행동에 간섭하지 않는 편이다.				

13	내가 어떤 일로 걱정을 하고 있으면 아버지는 함께 의논해 주신다.				
14	아버지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나에게 요구하시거나 시킬 때가 많다.				
15	아버지는 하찮은 일로 꾸중하시는 편이다.				
16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에게 대한 일을 아버지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다.				
17	아버지는 내 말이라면, 우선 믿으시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8	나에게 관련된 일이라도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신다.				
19	아버지는 나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을 거의 알고 계신다.				
20	아버지는 나의 일은 나 스스로 직접 결정하도록 맡겨주시는 편이다.				
21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버지는 거의 말 상대를 해주시지 않는다.				
22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실 때가 많다.				
23	내가 질문하면 아버지는 아시는 데까지는 자세히 설명해주시려고 애쓴다.				
24	우리 집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미리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5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관심을 갖고 들어주신다.				
26	아버지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거의 허락해주시는 편이다.				
27	내가 무엇을 해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우선 화부터 내시는 편이다.				
28	아버지는 공부나 집안일을 돕는 것 등은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말기신다.				
29	아버지는 내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30	아버지는 나에게 "이것은 안 돼.", "어떤 일은 하면 못 쓴다." 등과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신다.				

다음의 **여러분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시험처럼 맞거나 틀린 답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현재의 실제 자기 모습과 가장 잘 맞는 곳에 ○표를 하세요. 가능한 한 **문제도 빠트리지 말고 작성해 주세요.**

문항		전혀	가끔	자주
1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다.			
2	나는 다른 사람과 마주쳤을 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3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할 때는 미리 물어보고 사용한다.			
4	나는 교실에서 심하게 장난을 치는 친구를 무시한다.			
5	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겼을 경우, 그 사람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든다.			
6	나는 다른 사람에게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한다.			
7	나는 대들지 않고도 어른들에게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8	나는 책상 정리를 깨끗하게 잘 한다.			
9	나는 운동이나 클럽활동과 같은 학교 활동에 적극적이다.			
10	나는 숙제를 미루지 않고 제시간에 한다.			
11	나는 처음 본 사람이 내 이름을 묻지 않아도 내 이름을 먼저 말한다.			
12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도 나는 화난 감정을 조절한다.			
13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불공정한 규칙에 대해서 공손히 질문을 한다.			
14	나는 내가 어떤 친구를 좋아하면 그 사실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친구가 알게끔 한다.			
15	나는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귀담아 듣는다.			
16	나는 친구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걸 표현한다.			
17	나는 친구가 자신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준다.			

18	나는 어른들에게 혼날 수 있는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19	나는 부모님과 다툼 때 침착하게 해결한다.			
20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을 경우 칭찬을 한다.			
21	나는 수업시간 동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22	나는 수업시간 동안 해야 하는 과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마친다.			
23	나는 내가 먼저 반 친구에게 말을 걸어 이야기를 시작한다.			
24	나는 어른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 주셨을 때, 감사하다고 말한다.			
25	나는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른다.			
26	나는 친구가 화가 나 있거나, 속상해하거나, 슬퍼하고 있으면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27	나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에 관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8	나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놀리거나 욕을 하더라도 신경쓰지 않고 그냥 무시한다.			
29	나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30	나는 자유 시간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한다.			
31	나는 놀이나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친구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유한다.			
32	나는 학급 토론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33	나는 다른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밀치려고 할 때,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34	나는 문제나 논쟁거리가 있을 때, 그 일에 관해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을 작성하기까지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에 감사한 마음을 남기기 위해 글을 씁니다.

우선, 연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논문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채규만 교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석사생활 동안 교수님께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만하지 않고 더 발전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심리학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제가 논문의 방향과 논리적 근거를 잃지 않도록 가르침을 주신 김정규 교수님과 김명선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연구에 대해 고민할 때 자신의 고민처럼 저와 의논하고 제가 방향을 잃지 않도록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후배 단두리와 제가 통계의 늪에서 허우적댈 때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신혼 생활에 깨를 쏟고 있을 백지현에게도 너무나 고마움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문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과 설문을 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놓아주신 저의 든든한 지원군인 고모, 엄마, 아빠, 남편, 시어머니와 지혜정 선생님, 최솔 원장님, 정재석 원장님, 신인순 선생님, 보라 선생님, 박송희 선생님, 게탈 랩의 김현아 선생님, 홍성순 선생님, 백은영 선배, 나의 동기 류연주, Joey님, Frank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분들이 없으셨다면 저의 논문은 결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님에게 미약하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많이 부족한 저의 논문을 바치고자 합니다.